2010.08.11 No.72
gonggam.korea.kr

Weekly 공감



하회·양동마을 세계의 문화유산 되다 p10~15


www.mcst.go.kr
추억도 이제는 녹색입니다
지난 여름 자전거로 떠난 여행,
기차로 만난 향기가득 녹차밭
가족과 함께 떠난 걷기여행 등
추억 하나 하나로 녹색의 아름다움을 채워갑니다.
녹색관광으로 행복한 여행길,
녹색성장의 지름길을 만들어주세요!
녹색관광이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친환경 관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4대강살리기의 오해와 진실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된 도시화와 산업화는 하천의 순기능을 심각하게 마비시켜왔다.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不透水) 면적의 증가로 홍수 유출량이 커지고, 인구와 재산의 집중은 홍수 피해를 가중시켰다. 또한 지하수량의 감소로 하천의 건천화가 심화되고, 각종 오염물질의 증가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생태계도 훼손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1990년대 이후 가장 현저한 현상은 홍수량의 증가다. 최근 10여 년간 댐과 제방 등 치수구조물의 계획 빈도를 초과하는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치수대책은 주로 하천 치수구조물인 제방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제방을 쌓고 하천수로 내에서 홍수를 관리하는 방법은 기상이변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홍수재해에 취약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하천 유역에 저류공간을 확보해 초과 홍수량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하상 준설은 강폭을 넓히는 방법처럼 홍수위를 낮추는 데 직접적이고 즉시적인 효과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치수대책이다. 하천관리 측면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의 핵심은 하상 준설과 보(洑)에 의한 하도저류(河道貯留 · 하천수로 내에 물을 저장하는 것)다. 하상 준설에 따른 홍수위 저하 효과는 매우 자명하다.

그런데 보의 설치가 하천의 홍수 소통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나 부정확한 정보가 만연하고 있다. 보의 기능을 댐의 기능과 동일시하는 오류는 보 설치로 확보하는 저류공간이 댐의 경우에 비해 매우 작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생긴다. 보의 기능은 상류의 수위를 유지하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의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지 댐과 같은 방식으로 홍수를 조절하는 것은 아니다.

하천 횡단 구조물인 보는 적절한 통수능력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홍수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즉 하천 유량이 크게 증가하는 홍수 시에는 보 상류의 홍수위 상승을 막기 위해 보의 통수능력이 확보돼야 하는데, 가동보에 설치되는 수문이 이러한 기능을 한다. 따라서 보의 수문을 충분히 개방했을 때 통수능력이 보를 설치하기 이전의 통수능력에 못지않다면 보 상류의 수위가 보 설치 이전에 비해 상승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성균관대 수공학연구실은 차세대 홍수방어 기술개발연구단 연구과제의 일부로 4대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치수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의 하나로 이포보, 여주보 및 강천보가 설치되는 남한강 구간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 이전과 사업 이후의 하천에 대해 수리학적 계산모형을 활용해 2006년 7월 홍수에 대한 모의계산을 수행하여 각 지점별 최대 홍수위를 비교했다. 이때 거의 모든 구간에 걸쳐 홍수위 저하효과가 나타났음이 입증됐다. G



전경수
성균관대 사회환경
시스템공학과 교수

Weekly
2010.08.11
No.72(통권 173호)

Contents



표지 이야기

7월 31일 브라질에서 열린 제3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문화유산)으로 안동 하회마을과 함께 등재된 경주 양동마을의 향단 모습.
사진 · 동아DB



일러스트 · 이우정





Weekly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08.11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기 획 특 집

생명의 물줄기 희망이 흐르는 강

미호종개, 감돌고기, 꼬치동자개, 모래주사,
이런 이름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강에서 보기 어려운, 정다운 우리 물고기들입니다.
부모님 어린 시절 냇가에 발 담그면 수줍게 발을 간질이던
우리의 물고기들, 강이 깨끗해지면 이들이 돌아옵니다.
생태습지엔 새들이 깃들이고 아이들의 맑은 웃음이
수변공간을 채웁니다. 맑은 물, 살아나는 자연,
노니는 아이들…. 강에 생명이 돌아오면 우리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의 아이들이
깨끗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4대강살리기는 생명 살리기, 우리의 희망 살리기입니다.

10



공감 라운지

GONGGAM KOREA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71호(8월 4일자) 기획특집 '다시 민생 속으로!'와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취업 기회 제공은 삶에 희망 주는 일"

"현재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특히 취업애로계층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정부와 기업, 상공회의소, 대학 등이 우리 사회에서 고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 계층을 위해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했으면 합니다."_yjchoi0201

"세계 여러 나라가 아직도 경제위기 속에서 허우적거리는데 우리나라만 빠른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니 놀랍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 냉랭하기만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획특집은 제 얼굴에 한 아름 미소를 짓게 해줬습니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소상공인 일자리 특례보증제 등 다양한 제도가 서민들의 희망이 될 거라 믿습니다."_신금순

"정부 지원 이용해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두드려라 인턴제, 취업문 열릴 것이다' 기사를 읽고 심각한 대졸자 취업난을 계기로 정부가 다양한 청년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대졸자들이 지나치게 대기업이나 공기업 위주로 취업하려 하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도 알아보면 갈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청년취업의 탈출구로 중소기업 인턴제가 잘 정착됐으면 합니다."_김주현

71호 중점기획 '서울 G20 정상회의 D-100일'을 읽고 독자가 올린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큰 국제행사를 열 수 있게 되어 대한민국의 국력과 위상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실감하게 되는군요. 물론 올림픽과 아시안게임도 치렀고 크고 작은 각종 국제행사도 이미 주최해봤기에 잘 치러낼 자신은 있습니다. 이제 1백 일 앞으로 다가온 큰 행사를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 더욱 열심히 준비하라는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_우향화

71호 한글 세계화 '찌아찌아족 한글 사용 1년'을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한글이 세계화의 붐을 타고 서서히 다른 나라로 전파된다는 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더구나 배운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대다수 학생들이 한글을 읽을 줄 알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취업까지 하고 싶다고 한다니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그들에게 한글이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재 지원 등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뒤따랐으면 합니다."_최영지


"오늘은 그늘, 내일은 스마일"


印尼 찌아찌아족 한글 실력 "놀라워라"

알립니다

‘깨끗한 바다 만들기’ 콘텐츠 공모

점점 오염되고 있는 바다를 깨끗이 보호하고 미래 전략산업인 해양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깨끗한 바다 만들기’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부문 | 사용자 손수제작물(UCC), 4컷 만화, 표어, 포스터, 사진
참가 대상 | 초중고교생 및 일반인(대학생 포함).
표어, 포스터 부문은 초중고교생만 가능
접수 기간 | 8월 31일까지
접수 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공모요강 확인 후 UCC, 4컷 만화, 표어, 사진은 홈페이지 접수. 포스터는 우편 접수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잠원동 26-4 세원빌딩 502호 해양환경관리공단 공모전 담당자 앞
수상자 발표 | 9월 20일 예정.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재
시상 내용 | 입상자 전원 생태체험 참가 기회 제공. 공모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상장과 상금 수여 예정

해양환경관리공단 ☎ 02-511-7661 koemcontest.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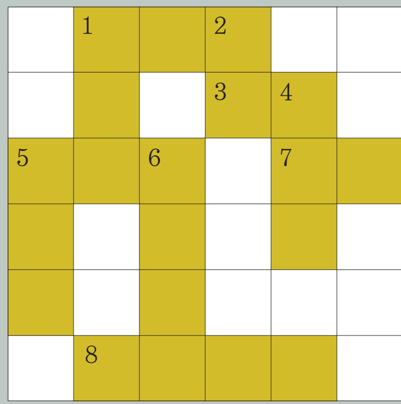
‘건강검진으로 큰 병 막아요’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사례를 널리 알림으로써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 건강검진 체험수기를 공모한다.

공모 주제 |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치료한 사례
공모 분야 | ①일반 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포함) ②영·유아 건강검진 ③암 검진
참가 대상 | 전 국민 누구나(건강보험 가입자인 외국인, 재외국민 포함)
접수 기간 | 8월 31일까지
접수 방법 | A4 용지 3, 4장 분량 수기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081022@nhic.or.kr)으로 접수
접수처 |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8-9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건강검진 체험수기 담당자 앞
수상자 발표 | 9월 30일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
시상 내용 | 최우수상(1명) 1백만원, 우수상(6명) 50만원, 장려상(13명) 20만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 02-3270-9876 nhic.or.kr

공감 퍼즐



빈칸의 답을 주소, 연락처와 함께 8월 18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가 로

1. 전남 담양군 용면 추봉에서 발원해 담양, 광주, 나주, 영암을 지나 하굿둑을 통해 서해로 흘러드는 강.
3. 같은 종에서 성별, 나이와 관계없이 모양과 성질이 다른 개체가 존재하는 현상. 돌연OO.
5. OOO나무의 붉은색을 띠는 열매. 한방에서 해열제, 강장제 등의 약재로 쓰이며 건강식품으로도 많이 먹죠.
7.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 OO제일.
8. 궁중에서 사용하던 등. 조선시대에 벼슬아치가 밤에 다닐 때 쓰던 품등(品燈)이기도 하죠.

세 로

1. 여러 사람이 함께 무거운 물건을 메고 갈 때, 힘을 맞추기 위해 내는 소리. OOO영차.
2. 강의 가장자리에 잇닿아 있는 땅. 또는 그 부근. 강가.
4.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갑자기 먼바다 쪽으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해류. 올여름 해운대 등에서 발생해 해수욕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Rip Current.
5. 더운 여름철이면 자주 등장하는 옛날이야기 중 하나. 사람이 되고자 하나 번번이 실패하고 마는,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
6.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대가 없이 도우는 것, 또는 그런 활동.

〈Weekly 공감〉 70호(7월 28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소나기 3 한식 4 비바리 5 에티켓 7 밥상
세로 1 소믈리에 2 기한 4 비빔밥 6 티베트 8 상승

〈Weekly 공감〉 70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미정·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
박천호·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9리
이선미·인천 남동구 도림동
조금희·강원 원주시 우산동
홍미선·광주 서구 풍암동

미래 농업은 친환경 생명산업

김성녀 농업 녹색기술 홍보대사

지구촌의 빈곤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20억 인구가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10억명 이상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며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뼈저린 가난과 배고픔을 체험한 적이 있기에 굶주림의 고통이 남의 일로만 여겨지지 않네요.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농업을 중요시하며 백성을 위해 농업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조상들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하여 농업을 으뜸으로 여겼습니다. 백성 대다수가 농민이었고 우리 식생활과 주거, 의복, 관습이 모두 농사와 연관돼 있었으니 농사를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열쇠로 받아들인 것이죠.



일러스트 · 김영민

'먹는 것은 백성에게 으뜸이 된다'는 애농(愛農)정신을 가졌던 조선조 세종대왕은 우리 농업환경에 알맞은 농업기술을 집대성해 〈농사직설〉이라는 뛰어난 농업기술 서적을 편찬했고, 정조는 수리시설을 확장하는 적극적인 농업 진흥정책으로 수전농업(水田農業)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타고난 근면성과 노력으로 최단 기간 빠른 경제성장에 성공한 우리 민족의 저력은 농업 분야에서도 빛이 났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의 발전상을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통일벼'로 대표되는 녹색혁명으로 쌀을 자급했고, 1980년대에는 '비닐하우스'의 백색혁명을 성공시켜 사시사철 원하는 농산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1세기를 맞은 우리 농업은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첨단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통·관광을 아우르는 복합산업, 친환경 생명산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농업기술이 지구촌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앞선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농촌개발 경험을 나누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이니셔티브(AFACI)를 결성하는 한편 베트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케냐, 브라질, 파라과이에서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민속음악을 바탕으로 우리 전통예술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해왔고, 지금은 국내 유일한 중앙대 국악대학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민속음악의 맥을 잇고 있는 저로서는 농민들의 음악인 '농악'을 자연스럽게 접해왔고, 그래서인지 우리 농업이 선진화되는 모습이 더욱더 반갑고 친밀하게 생각됩니다.

가난의 굴레를 벗고 성장해 지구촌 구석구석의 기아를 극복하고 빈곤을 완화하는 데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우리 농업이 자랑스럽고, 농업기술 속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낼 줄 아는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글 · 김성녀(국악인)

공감 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정유련 경기 김포시 사우동

1. '제1회 대한민국 앱 공모전' 기사를 읽고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DB)산업에 대해 다시 한 번 깨닫게 됐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많아지면서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각광받고 있는데 저 역시 이번에 좋은 DB를 바탕으로 앱 공모전에 도전해볼까 합니다.

2. 요즘 다들 '사는 게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이번 기획특집 '다시 민생 속으로!'를 읽으면서 '아직 절망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 상반기 7퍼센트대 성장을 이뤄낸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과 청년들에게도 '희망은 있다'고 자신하게 됐습니다.

3. 휴가철을 맞아 바다, 계곡 등 휴가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나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홍경석 대전 서구 둔산동

1. '한국의 나폴리'로 불리는 경남 통영을 다룬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가 흥미로웠습니다. 한려수도를 껴안은 수려한 풍광이 압권인 통영을 가족과 함께 다녀오고 싶습니다.

2. 이번 기획특집으로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각종 지원과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중 든든학자금과 미소금융처럼 어려울 때 돈을 빌려주는 정책들이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소액일지라도 이 돈은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3. 여름철 폭염으로 전력과 물의 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전기와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세요.

독 자 의 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8월 11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으로 다룬 '4대강, 생명의 강'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생활공감 국민행복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행정안전부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제3회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

행복한 세상 만드는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를 제안해주세요!



작지만 소중한 생활 속 국민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제3회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

■ **공모내용**
세금, 주택, 교육, 복지, 문화, 안전 등
국민생활 각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개선,
재정지원방안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 **공모대상**
대한민국 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 누구나

■ **집중공모기간**
2010년 8월 1일 ~ 10월 31일 까지
※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는 연중 상시 공모

■ **접수방법** _ 인터넷 접수 www.oklife.go.kr

■ **접수문의** _ 02) 2100-3860, 1758

■ **시상내역**
· 대통령상 7명(부상금 각 200만원)
· 국무총리상 7명(부상금 각 100만원)
· 행정안전부장관상 80명(부상금 각 10만원)
※ 시상내역은 변경될 수 있음

■ **수상자 선정기준**
· 2010년 10월 31일 까지 접수된 제안 심사
(이후 접수 제안은 2011년 심사)
· 동일 제안은 우선접수된 순으로 수상자 결정

■ **수상자 선정 및 시상식**
· 상시공모, 집중공모 및 각 기관별 생활공감 공모작 대상 심사
· 선정된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은 12월중 개최

| 제2회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대통령상 수상작 |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야간반 운영 _ 주부 박영주 / **장애인 복지용구 지원제도 개선** _ 주부 손연화
일용 근로자 소득금액 증명 제도 개선 _ 근로자 박경수 / **경찰서 방문없이 교통위반범칙금 납부** _ 직장인 마태성
다자녀 가구 사용량 제한 없이 전기요금 할인 _ 주부 조정순



민간 의전 지원요원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단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게 된다.
인터뷰를 위해 포즈를 취한 김형준, 이상지, 문나영, 이동신 씨(왼쪽부터).

한국인 자긍심으로 서울 G20 정상회의에 일조

G20 정상회의 민간 의전 지원요원 30명 선발 "소중한 경험"

서울 G20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들을 지원할 민간 의전 지원요원들이 선발됐다. 정상회의 의전과 각종 행사를 지원하게 될 이들은 자신의 꿈과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키우는 무대로 G20를 택한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이다.

"지원서 특기란에 '주차'라고 썼는데, 그걸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뽑아주신 것 같아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만난 이동신(27) 씨. 그는 같이 인터뷰에 응한 김형준(24), 문나영(23), 이상지(19) 씨와 함께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선발한 민간 의전 지원요원들이다.

준비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 서울 G20 정상회의 국별 의전연락관(DLO · Delegation Liaison Officers)을 도울 민간 의전 지원요원 최종 합격자 57명을 발표했다. 이 씨 등은 지금부터 11월 11, 12일 서울 G20 정상회의가 열릴 때까지 활동하게 될 제1그룹 소속 민간 의전 지원요원(총 30명)들이다. 나머지 제2그룹(총 27명)은 서울 G20 정상회의 직전 3주 동안 활동하게 된다.

"전공을 국제무대에 접목하는 기회로"

민간 의전 지원요원들은 의전연락관을 도와 의전과 각종 행사 등 참가국의 모든 요청사항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무를 맡는다. DLO란 서울 G20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국별 대표단을 전담하는 현직 우리나라 외교관들. 참가국과 국제기구에 각각 3~5명씩 배정돼 방한 일정과 방한 중 담당 국가 정상과 배우자의 전 일정을 조정하고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는 민간 의전 지원요원이 정말 주차를 잘해서 선발됐을까. 실은 이 씨의 '너스레'다. 부모님이 대기업 해외주재원이어서 14년간 외국에서 살았다는 그는 미국 워싱턴의 조지타운대에서 회계와 재무를 복수 전공하고 올봄 졸업한 '글로벌 인재'다.

준비위원회가 이번 선발을 위해 3차 심사를 실시한 결과 합격자들 다수가 영어 외에도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등 G20 회원국 언어에 능통하며 국제회의 참가 및 국제기구 근무 경험이 있는 20, 30대 인재들이었다.

이 씨는 2008년 워싱턴에서 첫 G20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차를 운전했던 인연으로 G20 정상회의에 관심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번 기회 살려 외교무대 경험 쌓고 싶어요"

"외국에서 성장하다 보니 한때 나 자신이 누구인지, 한국인인지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2 한일월드컵 때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한국인이란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그때의 자긍심을 다시 한 번 느껴보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행사에도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김형준 씨는 미국 텍사스주립대에서 스포츠경영학을 전공하고 올가을 연세대 국제대학원 입학이 확정됐으나 휴학을 불사하고 민간 의전 지원요원 활동을 하게 됐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에서 2007년 두 달 반가량 자원봉사활동을 하기도 한 김 씨는 스포츠외교 분야에 관심이 많다.

"제 전공을 국제무대에 접목하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가 끝난 후에도 기회가 되면 다시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서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이화여대 국제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문나영 씨 역시 한 학기를 휴학하며 열정적으로 민간 의전 지원요원 활동에 나서고 있다.

"e메일로 최종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저는 사실 1차 서류심사 통과 때가 제일 기뻤어요. 실력이 쟁쟁한 분들이 서류를 제출해서 서류심사 통과가 어렵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문 씨는 주변 친구들 중 몇몇이 해외여행을 갔다가 민간 의전 지원요원 면접을 하기 위해 중도에 귀국하는 등 대단히 열성적인 지원자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제 전공이 국제법과 국제관계학이어서 G20 정상회의에 항상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이번 기회에 제 힘이 보탬도 되고 저 역시 외교무대에서 활동하는 경험을 쌓고 싶어요."

'연세대 국제학부 10학번'인 이상지 씨는 이번 민간 의전 지원요원 중 최연소자로 유일한 '10대'다. 역시 올 2학기를 휴학했다.

"지난해까지 고등학생으로 국제 이슈에 관심이 많았지만 대입 수능에 매달리느라 제대로 국제 이슈를 공부할 기회가 없었어요. G20 정상회의가 중요한 국제 이슈를 다루는 데다 지난 10년간 저의 '롤 모델'이었던 손지애 전 CNN 기자가 G20 준비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것이 계기가 돼 지원하게 됐어요."

마침 이 씨가 면접관으로 만난 사람이 손 대변인이었다. 그래서 면접 자체만으로도 무척 기뻤다고 한다.

이번에 선발된 민간 의전 지원요원들은 마지막 관문인 면접을 위해 G20 정상회의에 관한 내용을 공부했으나 정작 면접에서 중요했던 것은 지식이 아니었다고 입을 모았다. 팀워크와 융화를 중시하는 사고, 국빈을 맞아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이를 널리 알릴 자질, 상황 대처 능력이 면접에서 당락을 결정지은 요소였다.

"제가 앞으로 뭘 하든 한국인으로서 한국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의 역할은 작지만 언젠가 국제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하며 한국을 대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이날 인터뷰를 위해 만난 4명 중 '맏이' 격인 이동신 씨의 믿음직한 다짐이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며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G

글 · 박경아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행사 지원요원·청사초롱 리포터도 모집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8월 23일까지 서울 G20 정상회의 '행사 지원요원(Support Staff)'과 '청사초롱 e-리포터'를 공개 모집한다.
행사 지원요원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또는 한국 내 거주 외국인으로, 영어 또는 참가국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청사초롱 e-리포터(1백명 선발)는 연령에 제한 없이 소셜네트워킹 서비스(SNS) 활동을 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 지원요원은 참가 대표단의 출입국, 숙박, 등록 및 회의 참가 등을 지원하거나 미디어센터에서 기자단의 취재활동을 돕게 된다.
청사초롱 e-리포터는 9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미, 의장국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글로벌 에티켓 등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한 콘텐츠를 취재하고 온라인과 모바일 개인미디어를 통해 서울 G20 정상회의를 홍보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 G20 정상회의 www.seoulsummit.kr



안동 경주

"하회·양동마을에 경사 났네~"

'한국의 역사마을'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안동 하회마을.

조영철 기자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에 나란히 큰 경사가 났다. 지난 7월 31일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제3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두 마을을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Historic Villages of Korea : Hahoe and Yangdong)'이란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문화유산)에 등재했기 때문이다.

'두 마을은 풍수조건을 잘 갖춘 길지(吉地)에 자리 잡은 이상적인 마을로, 격식이 높은 살림집, 사당, 정사, 서원, 서당 등 역사적인 건축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또 역사적으로 두 마을이 배출한 걸출한 인재들이 학술적, 문화적 성과물을 많이 냈으며 관혼상제, 세시풍속, 공동체 놀이 등 양반과 상민 계층의 무형유산이 잘 전해 내려오고 있는 드문 사례다.'





문화재청

安東



조영철 기자

유네스코는 이처럼 등재 근거로 두 마을이 5백~6백여 년간 조선시대의 주거문화와 유교적 양반문화를 온전하게 보존해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안동 하회(河回)마을은 낙동강(河)이 마을을 섬처럼 감싸며 도는(回) 형상으로, 15세기 풍산 류씨 집안이 정착하면서 6백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혈연 마을이다. 조선시대 재상 류성룡을 비롯해 인재를 많이 배출한 하회마을에는 16~18세기 고건축물이 많다.

류성룡의 생가인 충효당(보물 414호), 류운룡의 종택(보물 306호)을 비롯해 북촌댁, 화촌서당, 옥연정사 등이 대표적이다. 또 류성룡의 〈징비록〉 등 문헌자료나 하회별신굿탈놀이(중요무형문화재 69호)처럼 유·무형 자산도 풍부하다. 하회마을에는 지난해에만 80만여 명, 외국인 4만여 명이 찾아왔으며, 1999년에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방문하기도 했다.

경주 양동마을은 조선 초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 종가가 5백여 년간 전통을 이어온 양반촌이다. 설창산에 둘러싸여 여러 작은 골짜기가 나란히 흐르는 물(勿)자 모양의 지세로, 이를 활용한 건축물 배치가 돋보인다. 조선 중종 때의 문신 이언적이 지은 향단(보물 412호), 조선 청백리 손중돈의 옛집인 관가정(보물 442호), 이언적의 종가인 무첨당(보물 411호) 등 양반 가옥 54채, 초가 1백10여 채가 조화를 이룬다.

귀중한 문헌자료로는 1420년(세종 2년)에 찍은 금속활자본 〈통감속편〉(국보 283호), 조선의 문신 손소의 초상화 〈손소영정〉(보물 1216호) 등이 있으며, 양동 줄다리기와 같은 마을 공동체 놀이도 잘 보존돼 있다. G

글 · 최은숙 기자

문화재청 국제교류과 ☎ 042-481-4737

경주시청

조영철 기자

1 하회마을에 있는 충효당(보물 414호)은 조선 중기 문신 류성룡의 가옥이다.
2 하회마을에는 양반의 기와집과 서민의 초가집이 조화롭게 어울려 있다.
3 강이 마을을 감싸고 도는 하회마을의 지세는 연꽃이 물에 떠 있는 형상이기도 하다.
4 양동마을 관가정(보물 442호)은 조선 중기 남부지방 주택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문화재다.
5 양동마을 무첨당(보물 411호)은 손님 접대, 쉼터, 책읽기 등의 용도로 쓰인 공간이다.
6 양동마을 남쪽에 위치한 심수정. 중요민속자료 제81호다.

慶州



동아DB



경주시청





慶州

경주시청

1 양동마을 두곡고택(사진 오른쪽 위)과 마을 전경.
2 하회마을 연꽃.



安東

조영철 기자

하회마을 지키기 30년… 류성룡 14대 종손 류영하 옹


동아DB



"세상 살면서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두 가지 있었는데… 이제 그중 하나를 해냈소."

8월 1일 오후 3시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하회마을 충효당을 찾았을 때 서애 류성룡(柳成龍 · 1542~1607) 선생의 14대 종손 류영하(84) 옹은 이렇게 말했다. 하회마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결정됐다는 소식을 듣고서다. 서애 선생은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으로 이순신 장군 등 인물을 등용해 전란을 수습한 명신이다.

류 옹은 "30년 전쯤 내 손으로 하회마을보존회를 처음 만들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보존 가치를 설명한 게 시작이었다"고 유치과정을 회고했다. 당시 새마을 사업으로 하회마을의 지붕을 슬레이트로 바꾸려 할 때는 제지하기도 했다. 하회마을 입장료를 받기 시작한 것도 그때다. 보존회는 10년 정도 지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문화재청에 제안했다. 당시는 등재 경쟁이 지금처럼 치열하지 않았다.

하지만 무분별한 민박집과 음식점 난립이 문제가 돼 문화재청은 이 마을을 후보군에서 제외했다. 1999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마을을 다녀가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관광객이 몰리고 정비가 촉진됐다. 류 옹은 "2003년부터 안동시와 함께 원형복원사업을 벌이는 등 10년 넘게 등재를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8년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했던 김휘동 전 안동시장과 이상해 국제기념물유적협회(ICOMOS) 한국위원장의 노고를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실사단이 마을을 방문했을 때 류 옹은 캐나다인 린니 위원에게 충효당 방 한 칸을 숙소로 내주고 한국식 아침을 대접하는 등 정성을 쏟았다. 그는 "하회마을은 배출한 인물이며 자연경관, 하회탈춤 등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 옹은 서울에서 중앙고보와 성균관대 대학원을 마치고 동덕여고에서 생물 교사를 지냈다. 1971년 13대 종손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이듬해 종택인 충효당으로 내려와 지금껏 하회마을을 지키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폭염 속에서도 권영세 안동시장 등과 함께 마을 입구에서 방문객 1천명에게 하회탈 목걸이를 걸어 주며 1시간 동안 환영행사에 나섰다.

글 · 송의호(중앙일보 기자)

하회마을(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49-1) 관광안내 ☎ 054-852-3588 www.hahoe.or.kr



양동마을 알리기 15년… 이언적 17대 종손 이지락 씨



"기쁘면서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조선 중기 성리학자 회재 이언적(1491~1553) 선생의 17대 종손 이지락(42) 씨의 말이다. 그는 이언적 선생이 태어난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털어놨다.

이 마을 출신인 이씨는 대학 4년을 제외하곤 고향을 떠난 적이 없다. 15년 전 부친이 작고한 뒤 종손으로서 여강 이씨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고 있다. 연중 10차례의 제사 · 차례를 지낸다.

문중 어른과 국내외 학자, 관광객을 맞아 마을을 내력을 알려주는 게 그의 주요 업무다. 경북대에서 한문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그는 대학에 출강하며 한국국학진흥원의 객원 연구원으로도 일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이씨는 양동마을의 존재 가치와 보존 의지를 알리는 데 힘을 쏟았다. 그는 "(문화유산 등재는) 회재 선생의 존재와 학문적 힘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 '도덕성' '사람과 자연의 소통' '절제' 등 우리 문중의 정신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속마을은 세계 어디에도 있는 만큼 마을 자체가 아니라 다른 '무엇'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글 · 홍권삼(중앙일보 기자)

양동마을(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94) 관광안내 ☎ 070-7098-3569 yangdong.invil.org

"순국선열의 애국정신 기억하겠습니다"

올해 8월은 어느 해보다 특별하다. 제65주년 광복절과 경술국치(庚戌國恥) 1백 년을 맞이하는 달이기 때문이다. 호국선열의 나라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기대할 수 없다. 뜨거운 8월, 나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선조들을 기리며 그들을 기억하자.



산림청

"간직하고 싶은 배지를 신청해도 될까요?"

서울에 사는 고등학생 이은주(가명·17) 양은 올해 6·25전쟁 발발 60주년과 8·15광복 65주년을 맞이해 나라사랑을 기리는 배지를 신청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애쓴 참전용사와 독립투사를 기리고 싶었지만 그간 마땅한 방법이 없어 주저하다 올해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신청만 하면 무료로 준다는 말에 같은 반 친구들 40명 몫도 함께 신청했다.

나라사랑 큰 나무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에 대해 감사하고 예우하기 위해 만든 배지다. 2005년 디자인을 공모해 총 7백55편의 디자인 작품이 접수됐다. 배지 심벌을 보면 나무는 '대한민국', 태극무늬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열매는 '풍요로움과 번영', 파랑새와 새싹은 '자유와 내일의 희망'을 상징해 국가보훈을 형상화했다.

이 배지를 달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뜻을 기리고 이를 정신적 귀감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 산하 비영리법인인 함께하는나라사랑재단이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 달기' 연중 캠페인을 벌인다. 현재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 약 45만 개를 무료 배포해 나라사랑 정신을 알리고 있다.

이 같은 행사가 새삼 주목받는 이유는 올해가 '2010년'이기 때문이다. 6·25전쟁 발발 60주년인 데다 8·15광복 65주년, 경술국치 1백 년을 맞이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65주년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한 경축행사를 8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한다.

고귀한 희생 기억하는 국가보훈 선진화 정책 마련

이날 행사 주제는 '함께 가는 대한민국'. 광복을 경축하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유공자와 유족, 광복회원 등 4천5백명이 모인다. 특히 이날은 한일 강제병합, 경술국치 1백 년이 되는 해에 제 모습을 되찾은 광화문을 위해 광화문 현판 제막식과 광복절 경축식을 거행함으로써 광복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광복절 경축식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이날 독립유공자 포상자를 새롭게 지정해 그들의 애국정신을 기린다는 점에 있다.

올해 독립유공자 정부 포상자는 총 3백38명. 이들 중 건국훈장 애국장, 건국훈장 애족장 등 친수 대상자는 7명으로, 1909년 전남 나주에서 최광현 등과 의병부대 결성을 추진하다 피살돼 순국한 고(故) 최병현(崔柄鉉) 선생, 1935년 서울에서 조선총독부 고관을 폭살하려는 계획을 세워 실행하려다 체포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고 조득렬(曺得烈) 선생 등이다.

광복절 경축행사 외에도 광복절을 기념하고 경술국치를 되돌아보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 독립기념관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제20회 나라사랑 국가상징 큰 잔치를 개최했다. 글짓기와 그림그리기, 사진 등 총 3개 부문으로 이뤄진 이 대회는 8월 4일 사진전 최종심사를 마무리하면서 8월 11일부터 30일까지 열릴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

태평양전쟁 피해자를 추모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제3회 광복절 비둘기 마라톤대회도 열린다.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되는 이 대회는 2008년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해 시작됐다.

국가유공자 추모 및 기념사업 강화

산림청은 8월 한 달을 무궁화의 달로 정했다. 광복절과 경술국치일을 맞아, 나라꽃인 무궁화를 알리는 제20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를 기념하기 위해서다. 8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8월 14일부터 22일까지 인천대공원 등지에서 각각 '도시에 핀 무궁화' '삶 속에 핀 무궁화'란 주제로 잇따라 열린다.

일제에 의해 우리 국권을 강제로 침탈당했던 경술국치의 치욕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경술국치 1백 년 행사도 마련된다. 광복회와 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8월 29일 오전 10시 탑골공원 3·1운동 기념비 앞에서 열린다.

정부는 보훈을 한 나라의 '국격(國格)'이라 칭하며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기억하는 국가보훈 선진화 정책을 펴고 있다.

먼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보훈 대상 분류체계를 정비했고, 희생에 비례하면서도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상체계 구축 등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를 개편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의료 및 요양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3년까지 보훈중앙병원을 국가유공자 특성에 맞는 전문진료센터로 운영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을 통해 주거안정을 추진하고 개별 맞춤형 종합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시행해 국가유공자의 취업과 무상 교육에도 도움을 준다.

더불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추모 및 기념사업도 강화한다.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등 애국 상징시설을 초중고교생이 연 1회 이상 방문해 체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G

글 · 김민지 기자

광화문 제 모습 찾았다

8월 15일 현판 제막식·건청궁 내부 공개

한일 강제병합 1백 년인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의 수려한 모습이 공개되고 현판 제막식이 열린다. 또 안전진단 등을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됐던 경회루도 광복 65주년을 기념해 한시적으로 개방되며 명성황후가 기거한 건청궁 내부도 처음 공개된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등 국난을 거치면서 변형되고 왜곡됐던 광화문의 원형 복원을 위해 '광화문 제 모습 찾기 사업'을 추진해온 문화재청은 한일 강제병합 1백년인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원형 복원된 광화문을 공개하고 현판 제막식을 갖는다.

이번 광복절에 공개되는 주요 복원건물은 광화문을 비롯해 용성문(用成門), 협생문(協生門), 동서 수문장청(守門將廳), 영군직소(營軍直所) 등 건물 7동이며 광화문 좌·우측의 궁장(宮牆) 일부, 광화문에서 흥례문으로 연결되는 어도(御道)도 함께 공개된다.

고증자료와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옛 모습대로 원형 복원되고 있는 광화문은 한일 강제병합 1백 년을 맞아 광복절의 의미를 한층 되새기기 위해 8월 15일 현판식과 함께 우선 공개된다.

광화문 현판식 이후에도 복원이 완료되지 않은 동십자각 주변의 궁장(宮牆·궁궐 담) 설치, 하수암거(하수도) 이전 설치 등은 마무리 공사를 계속한다.

현판 복원은 1865년(고종 2년) 중건 당시의 광화문 현판 글씨를 기초로 했다. 당시 현판 글씨는 광화문 중건공사를 총지휘한 훈련대장 임태영이 쓴 한자로, 1916년께 촬영된 현판 사진의 유리 원판을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이 디지털로 복원했으며, 금강송에 양각했다. 2006년까지 광화문에 걸려 있던 현판 글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한글체다.

'광화문 제 모습 찾기' … 고종 때 중건된 모습으로 복원

광화문은 조선시대 법궁(法宮·정궁)인 경복궁의 정문으로, 1395년(태조 4년) 경복궁의 주요 건물들을 지은 뒤 세운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의 태조 4년 기록에 따르면 정전(正殿)인 근정전과 편전(便殿)인 사정전, 침전(寢殿)인 경성전·연생전·강녕전 등을 지어 궁궐의 기본구조를 갖춘 다음 궁성을 쌓은 뒤 동·서·남쪽에 궁문을 세우고 동문을 건춘문(建春門), 서문을 영추문(迎秋門), 남문을 광화문(光化門)이라 이름 지었다.

광화문은 임진왜란 때 경복궁의 다른 전각들과 같이 불에 탔다가 고종 2년 경복궁 중건 때 다시 세워졌으나 1927년 조선총독부 청사가 들어서면서 건춘문의 북쪽으로 옮겨졌다가 6·25 전쟁 때 폭격을 맞아 불탔다.



광복 65주년을 맞은 올 8월 15일 현판식을 갖게 될 광화문 주변에서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68년 돌 축대(石築) 일부를 수리하고 문루를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복원했으나 2006년 12월 시작된 '광화문 제 모습 찾기' 사업에 따라 고종 당시 중건했던 위치로 옮겨 복원돼왔다.

문화재청 궁릉문화재과 박찬정 주무관은 "복원이란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린다는 의미로, '광화문 제 모습 찾기'는 고종 때 중건된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청궁 안에 궁중 생활용품도 전시

한편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는 광복 65주년이 되는 이번 8월 15일을 기해 경회루를 일반 국민에게 개방한다. 경회루는 2005년 6월부터 특별 제한 관람을 시행하다 안전진단 등을 위해 2008년 3월 이후 2년 6개월 넘게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또 명성황후가 시해된 가슴 아픈 역사를 지닌 건청궁 내부도 경회루와 함께 개방된다. 건청궁은 그동안 앞마당만 공개됐을 뿐 내부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종황제가 머물던 장안당(長安堂)부터 명성황후가 기거하던 곤녕합(坤寧閤)까지 이어진 건청궁 안에는 재현된 궁중 생활용품들이 함께 전시된다.

문화재청은 '품격은 높게 문턱은 낮게'라는 5대궁 만들기 사업의 정책 방향에 따라 건청궁 내부와 경회루를 일반 국민이 볼 수 있게 했다.

경회루 개방은 경회루 2층 누각의 안전성을 고려해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며 하루 세 차례, 매회 60명씩 인터넷 사전 예약방식으로 운영된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들만을 위해 하루에 한 차례(오전 11시 · 60명) 별도 관람 시간도 마련한다. G

글 · 박경아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경복궁 ☎ 02-3700-3900 www.royalpalace.go.kr

광화문 면적과 연혁

면적	육축 240㎡, 문루 174.1㎡, 상층 110.7㎡
연혁	조선 태조 4년(1395년) 경복궁 정문으로 건립
	임진왜란(1592년)으로 소실
	조선 고종 2년(1865년)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지을 때 중건
	1926년 일제의 조선총독부 청사 신축으로 경복궁 건춘문 북쪽으로 이전
	1950년 6 · 25전쟁으로 육축 상부 문루(목조부) 소실
	1968년 당시 중앙청 축에 맞추어 건립 (원래 위치에서 북쪽으로 11.2m, 동쪽으로 13.5m, 경복궁 중심축에서 3.75° 반시계 방향으로 틀어서 목조 구조 대신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립)
	2006년 10월 '광화문 제 모습 찾기' 사업으로 복원 시작
	2010년 8월 15일 광화문 현판식

＊육축(陸築) : 성문의 문루를 떠받치는 기초시설



조선 고종 2년 경복궁 중건 당시 광화문 현판이 디지털로 복원돼 금강송에 양각으로 제작되고 있다.


동아DB

올해는 광복 65주년이자 경술국치 1백 년이 되는 해다.
사진은 광복 60주년에 열린 거리축제에 등장한 길이 1백80미터의 대형 태극기.

빛 되찾은 지 65년 글로벌 코리아 '우뚝'

반세기 만에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우뚝 섰다.
세계 9위 수출국으로, G20 정상회의 주최국으로,
도움을 주는 나라로 거듭난 것이다.
올해 65주년 된 광복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이유다.

올해는 일제(日帝)에 국권을 빼앗긴 경술국치(庚戌國恥) 1백 주년이자 광복 65주년이 되는 해다. 다른 해보다 광복에 대한 특별한 감회에 젖게 된다.

1백 년 전 경술국치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은 36년간 나라를 잃고 살았다. 이 기간 동안 수많은 독립투사들은 위국헌신(爲國獻身)의 일념으로 오로지 조국 광복을 위해 피와 땀을 쏟았다.

백암 박은식 선생이 "정신적 국가만 망하지 않았다면 형식상 국가는 망하였을지라도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은 나라다"라고 말했듯이 강인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독립투사들의 열정은 광복의 날을 안겨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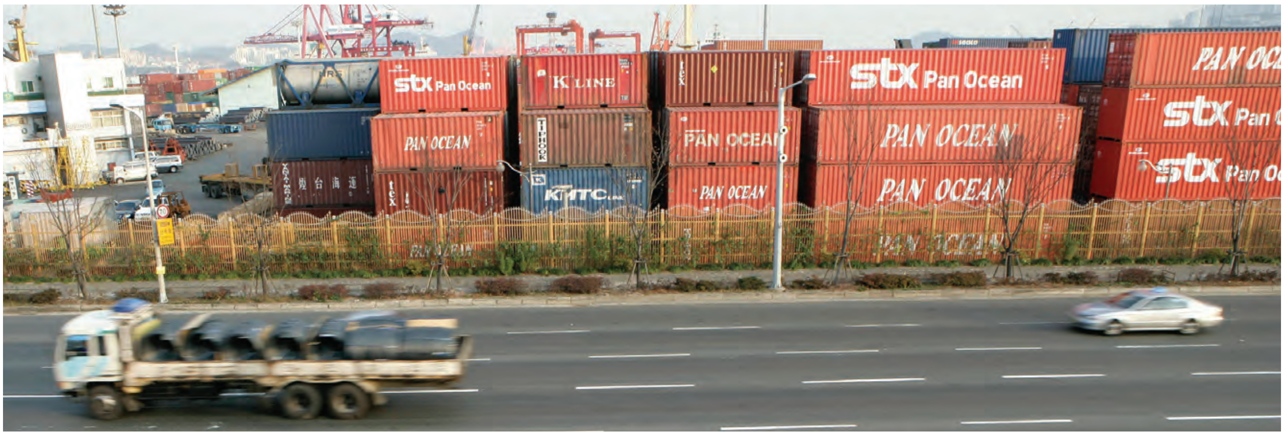
물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항복을 얻어낸 연합국의 승리가 식민통치의 굴레를 벗겨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광복은 그동안 독립투사들이 일제의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개해 온 독립운동의 값진 결실이었다.

민주화는 독립투쟁정신이 보여준 용기의 귀결

실제로 일제는 국내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은 물론, 해외에서 펼쳐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활동, 중국 대륙에서의 끊임없는 항일무장투쟁, 한국광복군의 대일항전, 개인의 목숨을 건 의거활동 등으로 한반도를 통치하면서도 늘 전전긍긍했다. 끊임없이 전개된 독립운동 덕분에 카이로회담과 포츠담회담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보장하는 약속이 가능했다.

그러나 광복을 맞이한 우리 민족의 기쁨은 찰나에 불과했다. 곧바로 미국과 소련에 의한 한반도 분할 점령으로 남북이 분단됐기 때문이다. 북한 땅은 광복의 빛이 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동아DB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딛고 세계 9위 수출국으로 거듭났다. 사진은 부산항의 수출 컨테이너.

며들기도 전에 공산독재 치하라는 기나긴 암흑지대로 변모해버렸다. 결과적으로 8·15 광복은 미완에 그치고 말았다. 곧 이은 동족상잔의 6·25전쟁으로 분단은 더욱 고착화됐다. 남북 간엔 치열한 체제경쟁이 벌어졌다.

남과 북이 갈라진 채 60년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숱한 대내외적 역경과 도전 속에서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1백40여 신생독립국 가운데 대한민국만큼 발전한 나라는 없다. 아니 이제는 웬만한 서방국가들도 대한민국을 만만히 보지 못할 상황이 됐다. 이제는 G20 반열에 속하게 됐고, 오는 11월에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나라가 됐다. 세계를 움직이는 20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과연 꿈이나 꿀 수 있었던 일인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혹독한 경기침체를 겪으며 교역이 크게 위축됐지만 한국은 세계 9위 수출국에 올랐다. 처음으로 '세계 톱 10' 수출국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룩한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도움 받는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가 됐고, 선진국과 후진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

대한민국이 성공가도를 달리게 된 비결 가운데는 끈질긴 독립투쟁정신이 자리 잡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민족은 36년간의 혹독한 일제 식민통치를 겪으면서 나라 잃은 설움이 어떠한 것이며, 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두 번 다시 나라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국을 이뤄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기에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맸고, 갖은 고통도 기꺼이 감내했다.

민주화는 또 어떻게 이뤄진 것인가. 이는 당연히 독립투쟁정신이 보여주었듯이 정의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의 귀결이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 풍요와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우리 사회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부의 편중으로 양극화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을 띠며 극단적인 분열상까지 보이고 있다.이러한 갈등은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광복 65주년… 정신적 의미 되새겨야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총체적 병리현상이 심각한 국가안보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26일, 그것도 남북한 모두가 민족의 영웅으로 우러러보는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1백 주기 기일에 일어난 천안함 피격사건은 우리의 내적 안보 대비 실태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극명하게 확인시켰다.

한 나라의 운명은 물질문명의 발달보다 그 나라 국민의 정신력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한다. 광복 65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가 다시금 광복을 기억하고 그 정신적 의미를 되새겨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 하나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 민족이 온전한 광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위해 한 발자국 더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선진 일류국가화를 도모하고, 처참한 지경에 빠진 북한 주민을 구해내기 위해선 이대로 북한체제를 방치할 수 없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땅에 광복정신이 아로새겨져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어둠으로 가득한 땅에 빛이 스며들고, 마침내 진정한 광복을 완성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G

글 · 오일환(보훈교육연구원장)

Save energy · Save earth ·

저탄소 생활실천
그린에너지패밀리
www.gogef.kr

올여름 전기절약 온국민 다함께 팍팍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1. 실내 **건강온도 26℃ 이상** 지키기
   (권장온도: 공공28℃/ 일반 26℃ /판매시설 • 공항25℃ 이상)
2. **낮 2시 ~ 3시**에는 **에어컨 사용 자제**하기
   특히! 낮 3시 전후엔 **에어컨 10분 끄기**
3. 점심 시간 및 외출 시에는 **조명등 끄기**



“실내외 온도차가 5℃이상 차이가 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아토피 등 피부질환과 비염, 폐렴 등 '냉방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에너지절약을 위해 건강온도 26℃를 지켜주세요.”

권오중 의학박사 (KBS 비타민 외 다수 출연)



mKE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기 획 특 집

생명의 물줄기 희망이 흐르는 강

미호종개, 감돌고기, 꼬치동자개, 모래주사, 이런 이름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강에서 보기 어려운, 정다운 우리 물고기들입니다. 부모님 어린 시절 냇가에 발 담그면
수줍게 발을 간질이던 우리의 물고기들, 강이 깨끗해지면 이들이 돌아옵니다.
생태습지엔 새들이 깃들이고 아이들의 맑은 웃음이 수변공간을 채웁니다.
맑은 물, 살아나는 자연, 노니는 아이들…. 강에 생명이 돌아오면 우리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의 아이들이 깨끗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4대강살리기는 생명 살리기, 우리의 희망 살리기입니다.



일러스트 · 이우정



4대강살리기는 환경 살리기

오염된 강, 병든 강 되살리는 생명운동

산업화에 몸살을 앓아온 우리 강이다. 도로나 항만 같은 인프라에 밀리면서도 산업화 과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오염물질들을 묵묵히 받아낸 우리 강이다. 4대강살리기는 오염된 강, 병든 강을 되살리고 우리 곁으로 되돌려놓기 위한 생명운동이다. 홍수와 가뭄을 번갈아 불러오는 변화무쌍한 기후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강산을 살 만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희망 살리기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 노력으로 1급수로 다시 태어난
울산 태화강에서 열린 수영대회.

후드득. 한바탕 소나기가 지난 때문인가. 경기 여주군 여주읍 상리 영월공원 내 현충탑 언덕 위의 시야가 탁 트인 나무 데크에서 습기 가득한 대기 너머 남한강 상류 쪽으로 눈을 돌리니 펼쳐지는 게 그저 아련한 푸른빛이다. 어디가 강이고 어디가 하늘인가. 푸른빛이 넓고도 길다.

언덕 바로 아래로는 짙푸른 물결이 넘실거린다. 강 건너 초록 숲에 자리한 천년고찰 신륵사 앞을 지나 유유히 흐르는 남한강. 강 이편과 저편 나루터를 오가는 황포돛배는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듯하다. 황포돛배를 따라 잠시 역류한 시간은 나루터 옆 강변 유원지에서 출발한 보트와 수상스키를 만나 다시 현대로 돌아온다.

시선을 남한강 하류 쪽으로 돌리면 5백 미터 길이의 여주대교가 보인다. 여주대교에서 가까운 신륵사와 강변의 여유로운 풍경, 여주읍내의 명성황후 생가, 여주대교 아래쪽 능서면의 세종대왕릉과 효종릉까지, 고풍스럽고 평화로운 여주의 여름 풍경이다.

홍수 위험 막기 위해 여주지역에 보 3개 설치

하지만 여주의 여름이 항상 이렇게 평화로운 것은 아니다. 이곳의 여름은 홍수 위협으로 점철돼왔다. 여주대교만 해도 2006년 7월 강물이 불어 홍수위험수위 9.5미터를 넘어 9.9미터까지 상승해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기도 했다. 그동안 여주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컸던 해로 꼽히는 것만도 1972, 1990, 1992, 1995, 2001, 2006년, 피해액으로는 2001년의 91억원이 최대다.

여주지역의 홍수 피해가 큰 것은 집중호우가 주된 원인이다. 여주읍 시가지를 배로 다닐 정도로 침수 피해가 심각했던 1972년의 경우 여주지역 연간 강수량은 1천3백54밀리미터로 예년 수준이었으나 8월에만 6백1.5밀리미터가 집중됐다. 1995년 8월 역시 7백22밀리미터, 2006년 8월 8백44밀리미터로 여름철에 비가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여주와 같이 나날이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기후변화 속에 홍수 위험이 빈발하고 있는 지역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4대강살리기 사업이다.

기후변화라는 인류의 위기에 대처하며 수해 예방과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복합공간 조성, 지역발전 등 다목적으로 추진되는 4대강살리기는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22조2천억원을 들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에 모두 16개의 보를 건설하고 강바닥을 준설하게 된다. 또 4대강을 따라 농업용 저수지, 강변 저류지, 생태하천, 자전거도로 등을 만들고 노후 제방을 보강하는 국토 살리기 사업이다. 댐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2011년 준공될 예정이다.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한강에 신설되는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등 3개의 보(洑)는 모두 여주지역에 들어선다. 이 지역의 홍수 위험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발길을 여주대교 위쪽 여주읍 단현리 한강살리기 사업 6공구로 옮기니 강천보의 우뚝 선 6개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인다. 건너편 강가에 빨간색 화살표시가 눈에 띈다. 보를 짓는 동안 강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고 있는 가물막이 밖으로 강물이 흐르는 곳이다.

"저 화살표는 지난해 수위 표시입니다. 보 건설과 더불어 준설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해 이곳 수위를 지난해보다 1.5미터가량 낮춰 홍수 우려를 크게 줄였습니다."

6공구 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박성순 강천보건설단장의 설명이다. 올해 여주지역에서 홍수 소식이 들리지 않았던 것은 비가 적은 탓도 있지만 준설을 통해 강 수위를 낮춘 데에도 이유가 있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강천보의 6공구 공사는 8월 4일 현재 전체 공정의 29.4퍼센트가 완료됐다. 보는 42퍼센트, 준설은 51퍼센트 작업이 이뤄졌다.

박 단장은 "이제 보 주변을 둘러 강물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했던 가물막이 철수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가물막이 철수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통합관리센터와 소수력발전소 건설, 수문 제작 등 육상작업이 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살리기는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수준 높은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방해받고 중단된다면 직접적인 피해는 지역주민이 보게 될 것이다. 4대강에는 지역주민의 소망이, 온 국민의 희망이 흐르고 있다.

강천보건설단이 강천섬 주변 생태하천(샛강) 준설작업 등을 위해 현장을 오가며 예정대로 한강살리기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포보 3공구 현장에서는 7월 22일부터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보 기둥 위 크레인을 기습 점거한 환경단체 활동가 3명의 점거농성이 14일째 이어지고 있었다. 진보성향의 사회단체나 정치인들까지 격려차 농성 현장을 찾아오고 있지만 정작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속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이포보 농성 현장 인근에는 4대강살리기 사업에 찬성하는 지역주민들이 내건 플래카드가 눈길을 끈다.



낙동강에 쌓인 퇴적물이 강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1500년 만에 찾아온 지역발전의 기회다. 외지인은 참견 마라"(천남리 주민 일동), "환경단체 및 야당은 한강살리기를 왜곡하지 마라"(보통리 주민 일동).

여주에서 나고 자란 여주 토박이인 교1리의 김재철(58) 이장은 "나도 환경운동을 했지만 지금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반대는 모든 개발에 반대하는 극단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여주 지역민 입장에서 하나씩 합리적으로 풀어가지 않고 현실을 무시한 환경논리를 내세우는 것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1500년 만에 찾아온 지역발전 기회"

"1998년부터 이장을 맡아오며 저도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보고자 환경운동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남한강종합개발사업에도 반대했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우리 동네 바로 앞의 소양천 개발도 당연히 반대했죠. 그런데 소양천 정비가 끝나니까 확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여름철에 비만 오면 언제 강물이 넘칠지 몰라 잠을 못 이루고 한밤중에도 강가에 나가보곤 했는데 요즘은 비가 와도 발 뻗고 잡니다."

자신의 땅이 소양천 사업지에 편입된다는 이유로 "이대로 내버려둬요" 하며 반대했던 다른 주민들도 요즘은 "개발하길 잘했다"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김 이장은 "내가 이장을 막 시작했을 때 인구 6만, 7만명이던 양평군이 요즘은 9만명을 바라보는데 그때 인구 10만명이던 여주는 1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10만명"이라며 "전에는 '여주, 이천' 이렇게 꼽았는데, 이제는 이천에도 뒤져버렸다"며 안타까워했다.

일차적으로 4대강 지역 주민들의 숙원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4대강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일부의 '대안 없는 발목 잡기'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답답한 속내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지난 7월 16일에는 충남 부여군의 사단법인 부여군 개발위원회(회장 김용태) 소속 지역주민 11명이 한나라당, 민주당 등 여야 정치권과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등을 직접 찾아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역 현실을 제대로 알고서 반대하려면 하라"며 "4대강살리기 사업을 원안 그대로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 주민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를 방문해 금



여름철이면 홍수가 빈발하는 경기 여주군의 여주대교 바로 아래까지 남한강 물이 넘실대고 있다.

강살리기 사업을 원하고 있으니 원안대로 추진해달라고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부여군민 1만2천명(총 부여군민 7만4천여 명)의 4대강살리기 사업 찬성 서명을 이날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에게 전달한 이들 주민은 탄원서에서 "금강에 접한 부여군은 홍수에 대비한 배수펌프장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39개가 있지만 금강 하굿둑을 막아 강물이 유통되지 않고 퇴적층이 쌓여 강의 하상이 높아짐으로써 역류현상이 일어나 배수펌프장 기능을 상실했다"며 "지역 현실을 모르는 일부 소수 사회단체가 생태계 파괴 등의 이유를 내세워 4대강살리기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금강의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강바닥 준설은 막힌 지역경제 동맥 뚫는 길"

사실 과거 경부고속도로나 서울 청계천 복원사업의 경우도 박수 속에서 진행된 것은 아니다. 준설과 보 설치를 포함한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인위적 개발'에 반대하는 시선도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고는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오염된 한강이 한강종합개발사업 이후 물고기가 살고 아이들이 헤엄치는 강으로 되살아나고 1990년대 '죽음의 강'으로 불리던 울산 태화강이 수영대회가 열리는 1급수 생태하천으로 바뀐 사례 등은 인위적 개발이 자연을 되살릴 수 있음을 입증한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은 "일부 국민이 반대한다지만 실제 4대강살리기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지자체와 주민 대부분은 사업을 환영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대구·경북지역의 일간지 〈매일신문〉이 1천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찬성 51.6퍼센트, 반대 36.4퍼센트로 나타났다. 이 중 '매우 반대'는 11.4퍼센트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4대강살리기는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안전하고 수준 높은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수혜자가 바로 지역주민입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방해받고 중단된다면 일차적 피해는 바로 지역과 그곳 주민이 보게 됩니다."

여주에서 돌아본 4대강살리기는 바로 지역 살리기, 지역주민 살리기였다. 강의 준설은 막힌 지역경제의 동맥을 뚫고, 보(洑)는 지역주민을 살찌울 것이다. 정화된 4대강은 국민의 생명수, 국가의 녹색미래가 될 것이다. 4대강에는 강물만 흐르는 게 아니었다. 지역주민의 소망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흐르고 있었다. G

글 · 박경아 기자

5년간 홍수 피해 복구비(21조원)만으로도 4대강 사업비(22조2천억원)가 해결됩니다

4대강살리기는 각종 자연재해에 대해 '사후복구'에서 '예방투자'로 전환하는 새로운 개념의 국가사업이다.
4대강살리기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역시 사후복구를 위한 비용이 예방투자를 위해 미리 사용되는 것이다.
같은 비용을 들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손실을 미리 막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연간 홍수 피해액 2조7천억원, 복구비 4조2천억원, 홍수 예방 사업비 1조1천억원. 이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홍수와 관련한 정부의 지출 명세로, 홍수 피해 복구 및 예방과 관련해 매년 평균 8조원이 사용됐다. 5년 동안의 지출 명세를 합치면 홍수와 관련해 모두 40조원을 사용한 것이다.

홍수 피해 복구비만 놓고 볼 때 과거 5년간 지출된 예산은 21조원으로 4대강살리기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22조2천억원)과 맞먹는다. 언뜻 보기에 4대강살리기 사업의 예산 규모가 커 보이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홍수 피해로 인한 손실과 복구비 등을 살펴보면 오히려 4대강살리기 사업이 훨씬 경제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연간 홍수 피해액과 복구비를 비교할 때 복구비는 홍수 피해액보다 1.5배 많다. 홍수 예방 사업비의 경우 매년 1조1천억원 규모로 홍수 피해액의 절반이 채 안 된다.

게다가 최근 우리나라의 홍수 피해액은 기후변



4대강살리기 영상기록팀

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급증하는 추세다. 1990년대 만 해도 우리나라의 홍수 피해액은 4천6백억원 규모였으나 최근 2조원대로 급증했다.

따라서 해마다 늘어나는 홍수 피해액과 복구비 그리고 홍수 예방 사업비를 지출하는 형태가 반복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 4대강 홍수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과거와 같은 '홍수 사후대책'이 아닌 4대강살리기 사업과 같은 '사전 예방 종합대책'임을 알 수 있다.

"치수 핵심은 물난리 막고 가뭄 극복하는 것"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조원의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그보다 더 많은 복구비가 들어가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집중 투자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심 본부장은 "치수사업의 시간을 끌면 국민 불편도 길어지고 물가상승으로 공사비도 증가한다"며 "4대강살리기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건의를 토대로 해 국회의 예산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적법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5년간(2002~2006년) 홍수 피해 관련 비용과 4대강살리기 사업비

홍수 피해액	복구비	홍수 예방 사업비	4대강살리기 사업비
13조5천억원 (연 2조7천억원)	21조원 (연 4조2천억원)	5조5천억원 (연 1조1천억원)	22조2천억원

심 본부장은 또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지류 먼저 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4대강에 집중 투자해 먼저 끝낸 다음 나머지 하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른 순서"라며 "본류 정비로 홍수위가 낮아지면 지류의 수위도 함께 낮아져 지류의 피해까지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차윤정 환경부본부장은 "우리나라에는 연간 1천2백40톤의 적지 않은 비가 내리지만 연평균 강수량의 70퍼센트가 6~9월에 집중돼 비가 오면 홍수 피해를, 비가 안 올 땐 가뭄 피해를 일으킨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내리는 비의 약 27퍼센트인 3백37억톤의 물을 이용하고 있으나 지금의 치수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2016년 10억톤의 물 부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치수의 핵심은 물난리를 막고 가뭄을 극복하는 것"이라며 "4대강살리기 사업의 키워드는 '미래의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치수사업'과 '건강한 수생태계 회복'으로 대표된다"고 말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남한강 상류 양촌지구는 둔치 조성이 마무리되어 자연이 살아 숨쉬기 시작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은 홍수 피해의 사후복구에서 벗어난 예방 중심의 치수정책이다. 사진은 울산 태화강이 홍수에 대비하고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정비된 모습.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4대강 준설은 원래 모습을 되찾는 작업입니다"

영산강 인근 농민 "배수로·길 확장돼 농사짓기 좋아져 환영"

남도 주민들에게 영산강살리기 사업은 '가뭄의 단비'다. 영산강 인근에서 만난 주민들은 한결같이 사업에 찬성했고, "반대하던 사람들도 여기 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악취가 풍기고 말라버린 영산강은 취재팀에게도 "저걸 그대로 놔둬선 절대 안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

전남 담양에서 시작된 영산강은 광주와 나주평야, 영산포구를 지나 서해바다로 흐른다. 영산강의 길이는 낙동강의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예부터 중요한 수자원이었다. 마한과 백제의 고대문화가 꽃피었고, 한반도 최초의 벼농사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영산강은 또 주요한 교통로였다. 과거에는 서해안의 배가 영산포(현 나주시 영산동)를 지나 광주(송정), 담양까지 드나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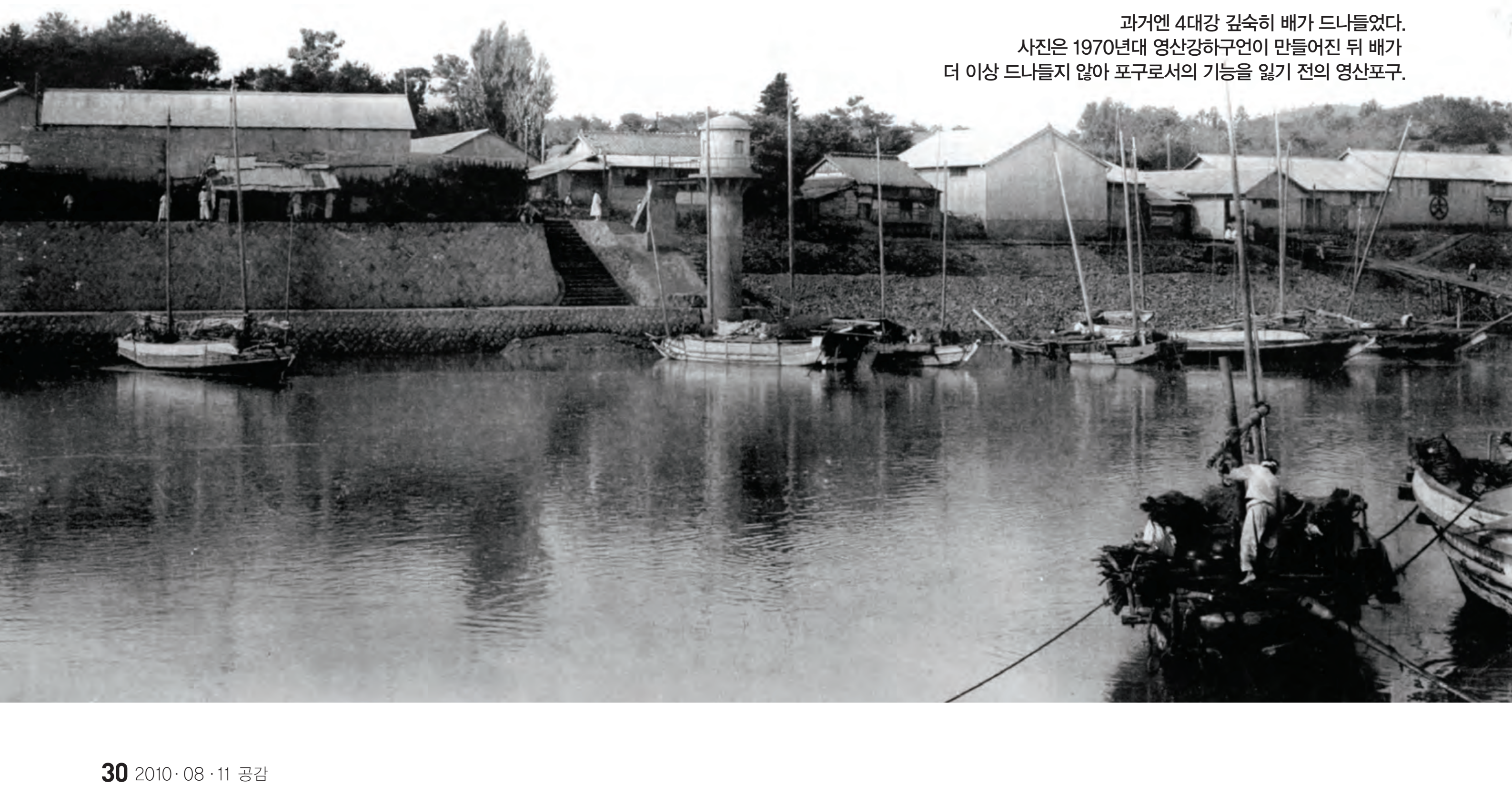
그러나 영산강은 1978년 하굿둑 공사로 물길이 막히면서 남도의 젖줄 구실을 할 수 없게 됐다. 강바닥은 높아지고, 광주천의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영산강은 쇠락해갔다. 강의 쇠락은 지역경제와 사람의 동반 침체를 가져왔다.

"저 물을 워찌 놔둔당가요. 저거시 강이라고 할 수 있능가요?"

7월 22일 죽산보 건설이 한창인 나주시 죽산면 영산강살리기 사업 2공구 현장. 공사장에서 만난 주민 윤태남(78) 씨는 강물을 가리키며 목청을 높였다.

영산강에서 어부 일을 했다는 윤 씨는 "옛날에는 물고기는 물론 세 끼를 재첩국으로 먹을 정도였다"면서 "지금은 고기 구경도 힘들지만 잡아도 먹지 못한다"고 했다.

죽산보 인근은 강폭이 6백 미터가 넘지만 물줄기는 50미터가 채 안 됐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임재식 팀장은 "영산강은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5급수"라며 "오늘은 그나마 며칠 전



과거엔 4대강 깊숙히 배가 드나들었다. 사진은 1970년대 영산강하구언이 만들어진 뒤 배가 더 이상 드나들지 않아 포구로서의 기능을 잃기 전의 영산포구.

집중호우로 물도 잘 흐르고 냄새도 덜 나는 편"이라고 말했다.

영산강뱃길복원추진위원회 양치권 위원장도 "이 물을 매일 바라보고 사는 주민들의 심정이 어떻겠느냐"고 하소연했다. 강이 오염되면서 주민이 식수로 쓰는 지하수도 불안해졌다. 주민 장동석 씨는 "요즘은 지하수에서도 냄새가 나고 색이 탁해 찜찜할 때가 많다"고 했다.

영산포는 1970년대 말까지 번성했던 영산강 최대 포구였다. 지금도 영산포에는 '홍어의 거리'가 과거의 번영을 추억케 한다. 김창원 영산강살리기협의회 회장은 "과거 영산포는 남도에서 가장 잘사는 동네였지만 뱃길이 끊기며 쇠락한 도시가 됐다"며 "영산강살리기 사업은 물길을 복원해 지역경제와 남도문화를 되살리는 것"이라고 했다.


동아DB

영산강을 지나는 배들의 이정표였던 영산포구 등대. 지금은 강물이 마르고 뱃길이 끊기면서 등대 불도 꺼졌다.

"지역경제·남도문화 되살릴 텐데 반대할 이유 없당께요"

영산강살리기 사업에는 농지개량사업 대상인 농민들도 호응하고 있다. 영산강지구 농지개량사업은 낙동강과 마찬가지로 준설토를 이용해 논을 평균 1.91미터 높인다. 내년에 1단계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영산포 들녘에서 만난 김일화 이화농원 대표는 "땅을 가진 농민은 모두 찬성"이라며 "배수로와 길이 확장돼 농사짓기가 아주 좋아지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농지가 좋아진다는 소문에 부동산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한 주민은 "농지가 옥토로 바뀐다는 소문에 3.3제곱미터당 4만원 하던 논값이 11만원으로 뛰었다"고 귀띔했다.

영산강은 여름철이면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수마(水魔)로 바뀐다. 1989년 강이 범람해 주민 15명이 목숨을 잃었고, 1998년과 2002년에는 영산포 시내가 물에 잠겨 주민 전체가 대피했다. 주민들은 지금도 비만 오면 수해를 입지 않을까 전전긍긍한다.

죽산보 건너 마을에 사는 윤보순(62) 씨는 "제방이 생기기 전에는 비만 오면 마을과 논이 침수됐고, 제방을 쌓고 나서도 물에 잠긴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영산강살리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이라며 "주민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사업을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영산강살리기 사업은 이곳 주민에게 생존의 문제다. 주민들은 반대 주장을 언급하자 거칠게 비판했다. 한 주민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기 실정을 모르고 우리 지역을 망가뜨릴 사람들"이라고 했다. 다른 주민도 "정부 통계를 보면 영산강은 현재 5억 톤 이상 물이 부족한데 사업을 마쳐도 약 4억 톤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을 살리고 홍수를 막는 대안은 영산강살리기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준설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김창원 회장은 "준설을 하지 않고 조경만 하는 생태하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우리는 매년 생명과 재산 피해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데 우리 목숨이 물고기만 못하냐"라고 반문했다.

홍수방재 시스템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1989년 물난리 이후 영산강 제방은 하루 강수량 3백12밀리미터를 기준으로 보강됐지만 요즈음은 4백 밀리미터 이상 폭우가 예사"라며 "도대체 어떤 근거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영산강살리기는 4대강살리기 사업의 원조

영산강살리기 사업은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선거공약으로 2004년 민주당에서 낸 아이디어였다고 한다. 주민들과 전남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전남을 방문해 영산강을 살리겠다고 공약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의 원조인 셈이다. 전남도의회 의원도 절반 이상이 사업에 찬성하고 있고, 박 지사는 물론 임성훈 나주시장, 최인기 국회의원 등이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거나 찬성했다.

나주시청엔 기초자치단체로는 드물게 4대강살리기 홍보관이 있다. 홍경섭 나주시 부시장은 "영산강살리기 사업 중 나주시 비율이 80퍼센트에 이른다"면서 "나주시는 영산강살리기 사업으로 경제적 효과는 물론 향후 지역발전에 굉장한 도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 영산강사업지원단 김명우 단장도 "전남에선 사업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더 많다"면서 "정부에서 전남도와 지방자치단체에 확실한 지원을 해서 사업을 성공리에 끝내야 한다"고 했다. G

글과 사진 · 공감코리아(korea.kr) 제공

한강

"한강살리기 사업은 여주가 서기 475년 백제 문주왕 때 골내근현(骨乃斤縣)으로 명명된 이래 1천5백여 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발전 기회입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5기의 첫발을 뗀 김춘석 여주군수의 취임 일성이다. 김 군수는 "조선시대 여주의 이포나루, 조포나루가 한강의 4대 나루로 성장하는 등 교통과 경제의 요충지였다"며 "한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남한강의 하천환경 정비는 물론 생태하천과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를 건설해 관광자원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주군은 민선 5기의 군정 슬로건을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라고 정해 한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기대를 담았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적극적으로 한강살리기 사업을 지지하고 있다. 지난 6월 9일 여주읍 단현리의 한강살리기 6공구 현장을 찾은 김 지사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한강지역의 수질이 개선되는 등 사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찬성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역경제 · 환경보전 조화 이룬 '녹색성장'

경기통계연보에 따르면 여주는 매년 장마 피해를 걱정해야 할 만큼 홍수조절 능력이 부족하다. 지난

"아이들과 물고기가 함께 뛰어노는 강"

야생 동식물 보존·생태하천 조성 등 대책 마련

**'친환경'은 한강살리기 사업의 핵심 키워드다. 경기, 충청, 강원 3개 도에 걸쳐 있는 한강살리기 사업 구간 1백17킬로미터는 '물고기가 뛰어놀고 아이들이 수영할 수 있는 강'으로 조성된다.
생태가 살아 있는 한강을 위해 야생 동식물 보존, 생명이 흐르는 생태하천 조성, 수질 개선 대책도 마련됐다.**





2008년 서울 강동대교 부근에서 군부대원들이 한강에서 수거한 각종 쓰레기를 옮기고 있다.

해에만 홍수로 여주에서 35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그러나 한강살리기 사업을 마칠 경우 남한강의 홍수위가 1~1.9미터 낮아져 범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한강살리기 사업은 지역경제 성장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룬 '녹색성장' 모델로, 관련 지역 지자체장들과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강살리기 사업 구간은 모두 7개 공구, 총연장 1백17킬로미터로 경기, 충북, 강원 3개 도에 걸쳐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의 양평과 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충북의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 강원의 영월군, 춘천시 등 대다수 지자체장들이 이 사업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법원도 한강살리기 사업이 타당하다는 편에 손을 들어줬다. 지난 6월 29일 서울고법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4대강살리기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의 경모 씨 등 6천1백80명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한강살리기 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강에 설치되는 보(洑)는 수문을 개방해 물을 방류할 수 있기 때문에 홍수위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식수오염 등 환경상의 손해, 생태계 파괴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신뢰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못했다"고 기각 사유를 명시했다.

'친환경'은 한강살리기 사업의 핵심 키워드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4대강살리기 환경 분야 세부 추진 계획' 중 한강살리기 사업의 목표는 '물고기가 뛰어놀고 아이들이 수영할 수 있는 강'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야생 동식물 보존, 생명이 흐르는 생태하천 조성, 수질 개선 등에 주력하고 있다.

동아DB

3개 보, 자연재료로 구조물 쌓는 친환경 어도 설치

먼저 사업 구간 내 희귀동식물 군락과 서식공간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한강살리기 사업 구간에는 포유류 2종, 조류 17종, 어류 1종, 파충류 1종, 육상식물 1종 등 총 22종의 법정 보호종이 살고 있다. 공사 중 이들 보호종에게 영향을 덜 끼치는 각종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양쑥부쟁이(멸종위기종 2급)가 많이 사는 삼합리섬 군락지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며, 강천섬에는 대체 군락지를 조성해 관리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강천보 건설단의 윤석영 차장은 "지난 4월 삼함·굴암지구 공사 구간에 자라던 단양쑥부쟁이 3만8천 포기를 인근 강천면 굴암리 강천섬의 대체 군락지(3천7백 제곱미터)에 이식했더니 그중 97.3퍼센트가 잘 자라고 있다"며 "현재 30센티미터가량 키가 자라 8월 말부터 무리 지어 꽃을 피울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강살리기 사업 구간의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는 모두 친환경 보로 설계됐다. 기존 하천의 경사면과 유속, 어류의 특성에 맞게 최대한 완경사로 설계하고, 자연 재료로 구조물을 쌓는 친환경 어도(魚道)를 설치하는 것이다.

동아DB



한강살리기 사업 구간에는 경기, 충청, 강원을 잇는 자전거도로와 수변 생태벨트가 조성된다. 사진은 올림픽대교 인근 산책로.

1980년대 초·중반 한강 둔치에 콘크리트 호안을 설치했던 한강개발사업과 달리 한강살리기 사업 구간에는 자연호안을 설치한다. 습지에 끼치는 영향도 최소한으로 적게 한다. 한강살리기 사업 구간에는 습지가 9곳 있으며 이 가운데 6곳이 공사로 영향을 받는데, 전문가들에게 자문해 보존가치가 높은 습지나 은모래, 금모래 등의 중요 모래톱은 원형 보존하는 시공법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강 상류 귀여지구, 검천지구 등에 생태습지 15개 지구를 새로 만든다. 2012년까지 한강변에 1백25만 제곱킬로미터(여의도 면적의 약 40배)의 생태림을 조성하는 수변 생태벨트 사업도 추진된다.

사업 구간에는 한강변 1백54킬로미터의 하천부지를 비롯해 3개 도를 잇는 총 3백5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가 개설된다. 또한 옛날 나루터의 정취를 되살리는 이포나루, 찬우물나루 등 7곳의 나루터가 복원될 전망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팔당호 상류 5개 권역의 경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상 '좋은 물' 비율을 2008년 57퍼센트에서 2013년에는 80퍼센트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염원이 한강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도록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과 수질대책 권역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중점 수질관리유역을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G

글 · 최은숙 기자

황포돛배 오가는 비단물길 따라 찬란한 백제문화가 되살아난다



금강이 찬란했던 백제문화와 함께 되살아난다. 하천변 농경지가 생태공원으로 복원되고 지역 역사와 전설을 담은 가동보가 강물을 풍부하게 만들어 황포돛배가 오가는 비단물길이 만들어진다.

금강

충남 부여군은 1천3백년 전 백제문화가 꽃피웠던 왕도(王都)다. 부소산성, 낙화암, 고란사, 궁남지, 금동대향로, 정림사지 5층석탑 등 문화재가 산재해 지역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관광이나 문화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44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여군민들은 금강살리기를 백제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조속한 추진을 희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16일 부여군민들은 금강 살리기 사업의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와 각 정당에 제출한 것이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영상기록팀

충남 논산시 금강 본류와 합류지점인 옥녀교 아래 강물이 오염돼 죽은 물고기들이 떠 있다.

지역민들의 바람처럼 금강살리기는 백제 문화유산과 연계한 충청권 발전사업으로 추진된다. 금강살리기 5공구 부여지구의 경우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탄생한다. 금강의 화려한 수변을 감상할 수 있는 산책로와 자전거길이 만들어지고, 연화마당과 생태습지, 궁남공원 정화습지, 물새섬 생태서식지 등 자연체험학습 공간이 조성된다.

금강살리기 6공구 청양지구는 부소산성, 낙화암 등 백제 역사와 어우러진 관광자원이 된다. 청정에너지 생산을 위한 소수력발전소가 설치되며 자연 관찰시설, 전망공원, 수변공원 등이 들어선다.

"백제 영광 재현할 수 있는 기회"

금강살리기 7공구인 공주지구에는 공주 탄생의 전설을 간직한 곰나루와 함께 문화생태공원이 들어선다. 금강보 주변에는 자연형 어도가 만들어지고 관광객을 위한 고마수상공원이 조성된다. 금강보 공도교, 웅진지구 수변공원, 신관지구 수변시설, 쌍신지구 생태공원 등은 이 지역의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문화와 연계한 생태복원은 금강살리기의 핵심 사업이다. 금강 본류 1백24킬로미터와 지류 75킬로미터는 생태하천으로 복원된다. 구불구불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영상기록팀

충남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갈대밭. 강변의 자연습지를 보전하고 인공습지를 새로 만들어 금강을 생태하천으로 되살린다.

흐르는 금강의 물길을 그대로 유지하고 강변에는 수생식물을 심어 자연의 모습을 살린다.

금강호 습지 등 22곳의 하천습지는 원래대로 보전하고 35곳의 습지가 새로 만들어진다. 또 강에는 자연형 어도를 설치해 물고기의 이동을 돕고, 둔치와 제방에는 생태벨트를 조성해 야생생물이 살 수 있도록 한다.

지역주민을 위한 수변공간도 조성된다. 도심구간에는 레포츠 문화 공간이, 비도심구간에는 생태 관찰 공간이 만들어진다. 또 곳곳에 산책로가 조성되고 2백48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는 금강 상·하류를 연결한다.

역사와 전설을 담은 보(洑)도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남보는 세종대왕의 측우기와 한글의 얼을 담고 있고, 금강보는 금동대향로의 봉황이 비상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부여보는 계백장군이 수문장이 되어 옛 수도를 지키는 모습이다.

하천변 경작지 생태공간으로 탈바꿈

금강살리기는 또한 홍수 방어와 수량 확보를 통한 수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먼저 큰물에도 넘치지 않고 가뭄에도 마르지 않으며 사시사철 맑은 강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 강바닥 퇴적물 5천만 세제곱미터를 준설한다. 준설을 통한 풍부한 유량 확보는 공주와 부여를 잇는 67킬로미터의 옛 뱃길을 복원하는 길이기도 하다.

3개의 가동보도 풍부한 물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수질오염은 특히 갈수기에 문제가 되는데 보를 만들면 가물어도 일정한 물을 흘려보낼 수 있어 하천의 정화작용과 오염물질 희석을 통해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다. 특히 가동보는 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움직여 퇴적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돼 오염물질이 정체되지 않는다.

준설과 보 외에 농업용 저수지 30곳 확대, 1백17킬로미터의 노후제방 보강 등으로 금강의 홍수 방어능력은 1억1천만 세제곱미터로 늘어난다.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도 집중 투자한다. 하수처리장 13곳과 마을하수도 38곳을 신·증설하고, 하수도 총인(TP·물속에 포함된 인의 총량) 처리시설을 36곳 설치하며, 5백55킬로미터의 하수관거를 정비한다. 산업폐수 종말처리시설을 9곳 신·증설하고 18곳은 고도화처리한다. 이 밖에도 4곳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확충 정비한다.

또 하천변 경작지를 정리해 생태공간으로 바꾼다. 도시화와 산업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 비교적 깨끗했던 금강의 수질이 나빠진 데는 2천3백1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강변 경작 탓이 컸다. 가축의 분뇨나 농약, 비료 등이 그대로 강물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처럼 금강으로 흘러드는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으로 금강의 '좋은 물(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3밀리그램 이하)' 비율은 2006년 64퍼센트에서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2년 79퍼센트로 개선된다.

유병로 한밭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금강은 지역민들의 생활 터전이며 역사문화 공간"이라며 "금강살리기는 깨끗하고 안전한 강, 생태가 살아 있는 친수공간을 만들고 백제문화와 연계된 생태관광지역으로 가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이혜련 기자



지난해 가뭄으로 댐 저수량이 급감하면서 황폐하게 메말라버린 안동댐 상류 주변.

"기억 속의 문화명소, 생태보전 관광지로"

연못·덤불·수목림 등 낙동강 연안 3곳 생태복원사업 결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인 낙동강. 길이에 비례하듯 문화자원과 수변공간도 무궁무진하다. 보 설치 공사가 제법 진척된 지금, 낙동강은 홍수나 수질 문제 같은 논란을 잠재우고 생태보전 관광지로서의 본격적인 변신을 꿈꾸고 있다.



낙동강

"캬~ 참 경치도 좋고 물도 좋으니 노래가 절로 나오는구나."

8월 1일 밤. 낙동강과 내성천, 금천 등 3개의 물줄기가 만나는 경북 예천군 삼강리의 옛 나루터에선 여기저기서 자연과 동화된 남성들의 목소리가 세상을 호령하고 있었다. 도대체 어디서 술을 마셨을까 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국내 마지막 전통주막인 '삼강주막'이 눈에 들어왔다. 이날부터 주막 주변에선 막걸리 축제가 열려 시끌벅적한 분위기였다.

이곳은 과거 나루터를 왕래하는 사람들과 보부상, 사공들이 이용하던 주막으로 1900년 무렵 문을 열었다. 2005년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134호로 지정될 만큼 주변 경관도 뛰어난 이곳은 2006년 마지막 주모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방치돼 이후 소박한 풍치를 잃어갔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기고, 대신 도로와 제방 건설로 강가 백사장이 메마른 대지로 바뀌었다. 그러기를 수년. 다시 옛 모습을 찾을 기회가 생겼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낙동강 연안 3곳 생태복원사업이 결실을 본 것이다. 주막과 나루터 주변 훼손 부지를 생태 연못 등 생물서식처(비오톱)로 복원해 인근 논과 낙동강변의 동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 참개구리 등 양서류 산란을 위한 연못, 곤충들의 은신처가 되는 초지와 덤불, 돌무덤, 새들의 안식처인 수목림도 조성했다. 이렇게 '삼강주막'은 8월 1일 새롭게 태어났다.

국내 마지막 전통주막 '삼강주막' 복원

이 밖에도 환경부 등은 낙동강변 명소인 송소고택과 개경포나루를 복원했다. 경북 청송군 덕천에 자리한 송소고택에선 마을 어귀에 있던 둠벙(소규

동아DB

모 저수지)을 생태 연못으로 '환생'시켰다. 또 멸종위기종으로 마을 하천에 나타나는 수달의 이동통로, 반딧불이와 연못 속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관찰로 등을 설치해 생생한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했다.

고려의 대(對)몽고 항쟁 때 팔만대장경을 실은 배가 도착한 개경포나루엔 낙동강의 역사 현장을 조망하는 전망대와 숲 생태 체험 탐방로를 조성했다.

환경부 이희철 자연자원과장은 "4대강 주변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생태관광 활성화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생태복원사업은 다각적으로 본격화된다. 현재 22퍼센트대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 보 설치 및 준설 공사와 더불어 생태하천 등의 복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우선 65구간 4백7킬로미터에 생태하천이 조성되고, 지천 13개와 도심 하천 한 곳도 복원된다.

우포늪 조류 개체수 32퍼센트 늘어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사이에 직유입되는 인근 지천으로 낙동강 지류에 속하는 위천 구간(안계면 위양리~단밀면 위중리) 7.5킬로미터의 생태보전 공간이 조성된다. 이곳은 보 설치 이후 흰수마자의 대체 서식지로 예상되는 곳이기도 해 눈길을 끈다. 사업이 끝나면 이어 친환경사업으로 위천 주변에 의성 역사문화트레킹로, 생태천이관찰원, 습지관찰데크 등 생태보전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미 사업이 끝나 국내 최대 생태습지로 거듭난 경남 창녕군 우포늪에선 천연기념물 제198호인 따오기 복원사업이 한창이다. 지난 6월엔 우포따오기센터가 환경부로부터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돼 앞으로 멸종위기종 복원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미 따오기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 올해 5월 중국에서 들여온 따오기 한 쌍이 새끼를 쳤고, 6월엔 일본에서 흰따오기와 밀짚따오기 각 한 쌍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우포늪은 지난해보다 조류 개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이 7월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천9백75개체에 비해 올해는 32.1퍼센트가 늘어난 7천8백92개체가 관찰됐다.

이와 관련해 낙동강 남지~삼랑진 구간에서도 조

동아DB



낙동강 지류인 금호강 둔치에 조성된 생태산책로. 준설, 보 공사가 속도를 내면서 낙동강의 생태복원사업도 다각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류 다양성이 증가했는데, 특히 멸종위기종인 큰기러기가 10개체에서 1백50개체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낙동강 지류인 금호강 구간에서도 쇠오리 개체수가 지난해보다 무려 7백95.7퍼센트 증가했으며, 멸종위기종인 큰고니가 처음으로 관찰됐다.

신규·대체습지도 크게 늘린다.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지역은 그대로 보존하고,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습지에 한해 대체습지를 조성한다. 결국 전체 습지량이 늘어난다. 낙동강 1권역에선 공사로 인해 영향을 받는 습지 8곳(66만1천4백50제곱미터) 중 보전 상태가 양호한 감노습지, 박진교습지 등 2곳(23만4천 제곱미터)은 놔두지만, 삼락습지 등 6곳(42만7천4백50제곱미터)은 불가피하게 훼손된다.

대신 추천강 하류의 한림습지 등 4곳(37만 제곱미터)을 새로 조성하며, 대체습지로 삼락, 딴섬 습지 등 7곳(55만1천 제곱미터)을 조성할 예정이다. 경남 합천군 적포 강변저류지는 평소에는 생태습지로 관리해 가시연꽃을 이식, 자생하게끔 조성한다.

한편 보 설치 및 준설에 따른 수질 상태도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수중 준설 시 발생하는 흙탕물은 인근 침사지로 배출해 부유물질을 충분히 침전시킨 다음 방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정진섭 수질관리팀장은 "환경부의 수질측정망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 1공구 지역만 보더라도 올해 부유물질 농도가 리터당 13~34밀리그램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낙동강 역시 다른 강과 마찬가지로 2012년까지 좋은 물(2급수) 달성도를 90.9퍼센트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천1백억원을 들여 하수처리장 등 총인 저감시설 82개소를 신설하고, 연계 사업으로 1조2천억원을 투자해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하고 완충저류시설 등을 설치한다. G

글 · 유재영 기자



“4급수 영산강, 2급수 맑은 강으로”

하수처리장·마을 하수도·하수관거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

4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남도의 젖줄, 영산강은 ‘죽음의 강’으로 전락했다.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물이 됐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다시 남도민의 생명의 터전으로 일구기 위한 영산강살리기가 한창이기 때문이다.

영산강

“엄마, 왜 자꾸 영산강에 오자고 하세요?”

전남 화순군에 사는 윤희(12)는 매년 봄 엄마 손을 잡고 영산강 하굿둑을 찾는다. 샛노란 물감을 흩뿌려놓은 듯한 유채꽃밭을 볼 때면 마음이 흐뭇해지다가도 영산강 하류로 다가가면 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쓰레기들이 둥둥 떠다니고 물거품이 부글거리면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윤희의 표정을 살피던 엄마는 “영산강에 오면 고향 생각이 나서…”라며 말끝을 흐린다.

윤희 엄마는 중국 옌볜 흑룡강성에서 온 조선족이다. 이곳에 온 지 벌써 15년이 지났다. 고향이 그리운 윤희 엄마에게 영산강은 제2의 친정이다. 윤희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한다. 자신과 엄마에게 삶의 터전이자 희망이 영산강이라는 것을. 지금은 심하게 오염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깨끗하고 맑은 강으로 되살릴 것이라 믿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매년 영산강과 섬진강을 아끼고 사랑하는 지역민들의 마음을 알리고자 영산강·섬진강 사랑 문예작품 공모전을 연다. 올해 산문 부문에서는 화순군 동면초등학교 6학년 조윤희 양의 글이 대상을 차지했다. 조 양은 글에서 자신의 고향이자 엄마의 두 번째 친정인 영산강이 다시 되살아나길 소망하는 마음을 간절히 드러냈다.

조 양의 기억 속엔 없지만 한때 영산강은 남도를 살리는 ‘생명의 강’이었다. 유량이 풍부해 많은 배들이 오가며 물고기를 잡았고 맑고 깨끗한 강물은 농업용수로도 사용돼 호남, 나주평야를 비옥하게 일궈냈다. 하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은 영산강을





조영철 기자

'죽음의 강'으로 변질시켰다.

1972년 영산강유역 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됐고 이어 1981년 하굿둑이 들어서자 상류에서 공장폐수가 흘러들고 쓰레기 등이 쌓여갔다. 마침내 1994년 봄 오염된 영산강이 신음하기 시작했다. 전남 무안군 몽탄취수장 인근에서 죽은 물고기 떼가 떠오르고 악취가 진동한 것이다. 이렇게 영산강은 1996년을 기점으로 '식수'용 대신 '농업용수' 전용이 됐다.

하도 정비 및 배수시설 보강 · 생태습지 조성

영산강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수질 개선이 시급하다. 영산강은 4대강 중 수질이 가장 나쁘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에 따른 연평균 수질은 한강이 1급수, 낙동강과 금강이 1, 2급수인 데 반해 영산강은 3급수로 나타났다. 특히 갈수기 때 중·하류의 수질은 농업용수 수준인 4, 5급수다. 특히 하굿둑 축조 이후 물 흐름이 단절되면서 매년 13센티미터가량 오염물질이 퇴적되고 임야에 비해 농경지 비율이 높아 오염원 관리도 쉽지 않다.

영산강의 또 다른 문제점은 유량 부족이다. 전체 길이가 1백38킬로미터로 4대강 중 가장 짧지만 홍수기와 갈수기의 수량 변동 폭을 나타내는 하상계수(682)가 한강(393), 낙동강(372), 금강(299)의 2배 정도다. 그만큼 홍수와 가뭄에 취약하다는 얘기다.

또한 상류 4개 댐의 연간 용수 유입량 중 12퍼센트만 하천 유지용수로 공급돼 유지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영산강의 심각한 실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영산강살리기를 반기고 있다. 영산강살리기가 수질 개선과 가뭄·홍수 피해 방지, 수량 확보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영산강살리기는 영산강 하굿둑에서 담양댐 하류부에 자리한 10개 공구에서 진행되고 있다. 2공구와 6공구 두 곳에 보(洑)를 만들고 하상 퇴적물 준설 등 하도 정비와 함께 제방 및 배수시설을 보강하고 생태습지를 조성해 영산강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7월 말 현재 2공구에 자리한 죽산보는 44퍼센트, 6공구의 승촌보는 58.1퍼센트의 실적률을 보이며 내년 말 완공 목표에 다가서고 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영산강살리기사업팀 신태상 주무관은 "보는 가뭄과 홍수에 대비한 수량 조절, 수질 개선, 여기에 동식물이 어우러지는 생태복원까지 이뤄내 영산강살리기를 주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질 개선 위해 3천5백억원 예산 투입

특히 영산강의 수질 개선에 방점을 두기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현재 3~5급수인 영산강의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하고자 3천5백69억원의 예산을 투자했다. 영산강의 수질을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인 2급수로 만들기 위해 2012년까지 하수처리장 14개와 마을 하수도 28곳, 하수관거 21개소, 총인 처리시설 13곳 등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안영택 실무관은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수질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면 2009년 38퍼센트에서 2012년 75퍼센트 수준으로 2급수의 맑은 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산강 수변생태공간 조성을 위한 '영산강 8경 사업'도 실시된다. 영산강 8경은 영산강 수변공간 가운데 문화, 환경, 생태 여건이 양호한 8곳을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생태경관팀 이용남 사무관은 "영산강 수변생태공간 조성사업은 해당 지자체 및 전문가의 조언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10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G

글 · 김민지 기자



▲올해 6월 제8회 영산강·섬진강 사랑 사진 공모전에서 동상을 받은 홍순덕 씨의 작품. 앞으로 영산강에 나루터가 복원되면 황포돛배도 더 자주 볼 수 있다.
◀영산강살리기는 전남도민의 염원이다. 영산강은 1981년 하굿둑 건설 이후 4대강 중 수질이 가장 악화됐다.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샛강·실개천도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4대강살리기 연계 전국의 작은 하천 생태계 복원

샛강·실개천 살리기, 생태하천 조성사업, 고향의 강 사업,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4대강만이 아니라 지천(支川)도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정부는 4대강살리기와 연계해 전국의 크고 작은 하천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시민 친수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강 살리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 사는 김은미(44) 씨는 매일 샛강을 산책하는 게 생활의 즐거움이다. 퇴근 후 저녁식사를 빨리 하고 강변을 따라 한 시간 정도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보면 하루의 스트레스가 확 날아간다.

샛강을 따라 잘 조성된 야생화 밭에는 사철 다른 꽃이 피고 지는데 요즘은 벌개미취, 쑥부쟁이 같은 야생국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아름드리 버드나무가 우거진 숲길은 시골 길을 걷는 듯한 정취를 풍긴다. 그 옆으로는 어른 키를 훌쩍 넘는 갈대밭이 빽빽하게 이어져 있어 김 씨는 "노을 지는 저녁에 샛강 길을 걸을 때면 마치 모네의 그림 속을 걷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처럼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을 도시 한복판에서 즐길 수 있는 건 샛강이 되살아난 덕분이다. 정부는 1970, 80년대 도시화와 산업화 속에서 생활폐수와 공장폐수로 오염됐던 하천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샛강·실개천 살리기, 생태하천 조성사업, 고향의 강 사업,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등 다양한 강 살리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생태하천 사업은 생명 숨쉬는 수변공간 만드는 일"

국토해양부는 홍수에 안전하면서 생태계가 풍부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1998년부터 오산천, 경안천 등 7개 하천에 대한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05년부터는 영산강의 제1지류인 함평천 등 국가하천 50개 지구, 지난해부터는 강릉 위촌천, 대구 신천 등 1백21개



한때 '죽음의 하천'으로 불릴 만큼 오염됐던 경안천은 자연정화능력을 갖춘 하천으로 다시 태어났다. 지역민과 지방자치단체, 기업, 정부가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다.

조영철 기자





▲태화강은 울산 십리대밭과 연계해 정비함으로써 53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도심 휴식공간이 됐다.
▶지난 5월 1급수에서만 사는 도롱뇽이 발견돼 화제가 된 서울 홍제천. 건천이었으나 생태하천 복원으로 맑은 물이 흐르는 실개천이 됐다.

지방하천에 대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각 시도로부터 추천받은 4백16개 하천 중에서 선정된 1백20개 지구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2천7백23억원이 투입된다.

생태하천 조성으로 달라지는 하천 생태계의 변화 과정을 관찰하고 적용 공법을 검증하기 위해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생태하천 조성 후 동식물의 종수와 개체수가 증가하고 수질이 개선됐다.

지난 5월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오산천(경기 오산시), 경안천(경기 광주시), 황구지천(경기 화성시)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하천에 사는 동식물의 종 다양성이 최대 65퍼센트 늘었으며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붉은배새매 등이 관찰됐다.

또 하천 수질도 개선돼 1급수 지표종인 플라나리아, 옆새우 등이 살고 있었다. 한때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오염돼 '죽음의 하천'으로 불렸던 경안천은 자연정화능력을 갖춘 하천으로 다시 태어났다. 2001년 경안천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1리터당 11.8밀리그램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7밀리그램으로 77퍼센트나 감소했다.

올해 1백9개 하천 1백20킬로미터에 1천8백억원 투자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김동익 사무관은 "기존 콘크리트 시설물과 농경지를 철거한 후 수생식물을 심고 비오톱(인공 생물 서식공간)을 조성해 하천의 자정능력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하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함평 나비축제와 같이 지역발전을 돕고, 울산 태화강처럼 도심의 문화·휴식공간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평천은 국비 3백45억원을 투자해 대표적 지역축제인 함평 나비축제와 연계해 정비함으로써 연간 5백만명 이상이 찾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됐다. 또 태화강은 총 1천1백96억원(국비 8백38억원)을 투자해 주거지역으로 계획된 18만6천 제곱미터를 하천으로 편입한 후 울산 십리대밭과 연계해 정비함으로써 울산 도심 한가운데 약 53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시민 휴식공간이 됐다.

환경부도 1987년부터 시행해온 수질 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1996년 양재천 시범사업을 계기로 생태 복원에 초점을 둔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

1987년부터 지난해까지 2백71개 하천 6백86.5킬로미터에 1조4천7백23억원을 투입했고, 올해는 1천8백65억원을 들여 1백9개 하천 1백20킬로미터를 생태복원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전북 전주시 전주천에는 1급수 어종인 쉬리, 참종개, 돌마자, 버들치 등이 살게 됐고, 충북 청주시 무심천에는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원앙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인 말똥가리, 흰목물떼새 등이 관찰되고 있다.

환경부는 4대강의 근원인 샛강·실개천 살리기에도 나서고 있다. 4대강으로 흘러드는 샛강과 실개천을 살리기 위해 4대강 유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협의체를 구성해 '1사(社) 1하천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강 유역인 경안천의 경우 신세계와 롯데가 참여하고 있고, 금강의 지류인 치성천 살리기에는 애경그룹과 청양군이 힘을 모으고 있다. 또 낙동강 지류인 신천은 대구백화점과 무림제지가 돕고 있으며, 영산강 지류인 나주천 정비에는 LG화학이 참여하는 등 1사 1하천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 박연재 수생태보전과장은 "하천이 과거 악취 나는 곳에서 동식물이 사는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식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G

글·이혜련 기자


영산포 뒤편으로 영산강의 준설토를 덮어 논을 높이는 농지개량사업이 한창이다.
농민들은 논이 높아지면 침수될 염려가 줄어드는 데다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사업에 적극적이다.

"파낸 흙, 우리 논에 다 줘요"

4대강 준설토, 논밭을 옥토로 바꾸는 '선물'

4대강 준설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방법이다. 강바닥의 퇴적물을 제거하면 물이 흐르는 면적이 늘어나므로 홍수위가 낮아지고, 가물어도 강바닥이 드러나는 일 없이 사시사철 적당량의 물이 흐르게 된다. 강물이 많아지면 오염이 줄고 물고기를 비롯한 다양한 동식물이 번성해 생태계가 건강해진다.

"검은 흙이 오염된 것이라고? 우리 논에 다 줘요."

경남 함안군 길곡면 신촌리 김종택(54) 이장은 "준설토를 덮어 논을 높이는 농지개량사업은 농민들이 서로 해달라고 아우성"이라고 말했다.

함안보와 달성보 건설 현장에서 강바닥 준설 중에 일부 검은 흙이 나오자 오염된 퇴적토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의 평균 준설 깊이는 0.2~1.3미터지만 보의 터 닦기를 위해 깊은 곳은 4, 5미터까지 파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강바닥에 쌓인 퇴적토에서 유해물질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 경남보건환경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가 함안보와 달성보 현장의 퇴적토에 대한 중금속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기준치 이내로 나왔으며 인근 지역 토양과 비슷한 수준의 농도 분포를 보였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박봉균 자연환경팀장은 "퇴적토 아래층은 산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혐기성 세균의 활동으로 검은색을 띠는 것"이라며 "개펄이 검은색을 띠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깨끗한 흙으로 밝혀진 4대강 준설토는 인근 농민들에게 논밭을 옥토로 바꿀 수 있는 선물로 여겨지고 있다. 4대강 준설토를 이용한 농지개량 사업은 침수 피해가 잦은 저지대 농경지에 준설토를 평균 2.5미터로 덮고 경지정리를 해 농경지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성토작업이 이뤄지면 침수로부터 안전하고 지대가 높아져 농토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민들이 환영하고 있다. 농지개량사업은 1조2천억원을 들여 1백49개 지구 8천 헥타르에

서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양수시설도 만들어진다.

농지 개량은 4대강 준설로 얻어지는 덤이다. 준설은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깨끗한 강물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다. 강바닥에 쌓여 있던 퇴적물을 제거하면 물이 흐르는 면적이 늘어나므로 홍수 때 똑같은 양의 물이 흐르더라도 홍수위가 낮아진다.

4대강 준설량은 7월 29일로 1억3천9백 세제곱미터.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변재영 사업지원1팀장은 "하천에서 그만큼의 흙이 나간 만큼 물을 담을 수 있는 물그릇이 커지고 홍수위가 낮아져 4대강은 홍수에 강해졌다"고 말했다.

남한강 유역의 경우 준설을 통해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퇴적토 2천2백만 세제곱미터를 제거해 여주지점을 기준으로 약 0.5미터 수위를 낮추는 효과가 발생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의 전체 준설량은 5억2천만 세제곱미터. 7월 29일 현재 전체 준설의 26.7퍼센트 정도가 진행됐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전 공구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하반기에는 준설작업이 빨라져 내년 우기(雨期) 이전에 준설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대강 전 구간의 준설작업이 마무리되면 1억1천만 세제곱미터인 안동댐 홍수조절 용량의 5배에 달하는 홍수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준설로 물그릇을 키우고 가동보를 설치해 물을 저장하게 되면 가물어도 강바닥이 드러나는 일이 없이 사시사철 적당량의 물이 흐르게 된다. 강물이 부족하면 물이 깨끗할 수 없다. 잉크 한 방울을 대야 물에 떨어뜨릴 경우와 수영장에 떨어뜨릴 경우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준설은 생태를 살리는 일이기도 하다. 맑은 물이 풍부해야 물고기를 비롯한 다양한 동식물이 번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지 개량은 4대강 준설로 얻어진 덤

1986년 이뤄진 한강종합개발사업의 경우 강바닥을 준설한 후 수질과 생태계가 모두 좋아졌다. 물이 오염된 정도를 나타내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1984년 1리터당 6.8밀리그램(한강대교)과 15.7밀리그램(가양대교)에서 2007년엔 3.5밀리그램과 3.0밀리그램으로 크게 개선됐다. 또 1987년 41종과 39종이었던 물고기와 새가 2007년엔 71종과 98종으로 늘어났다.

준설 과정에서도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높은 압력의 공기를 이용해 퇴적토를 빨아들이는 흡입 준설을 실시하고, 오탁방지막을 설치해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식수 안전을 위해 하류 지역과 취·정수장 주변에는 2중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준설선 사이를 2킬로미터 이상 떨어뜨리고 있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정진섭 수질관리팀장은 "준설로 발생하는 부유물 농도는 리터당 30~40밀리그램으로 홍수 시 취·정수장 으로 유입되는 흙탕물의 평균농도인 1백~3백 밀리그램보다 낮다"고 밝혔다. G

글 · 이혜련 기자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4대강 쓰레기 대청소

건강하고 깨끗한 4대강 만든다

4대강의 쓰레기가 말끔히 치워진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 구간 내 버려져 있는 폐기물을 모두 수거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대강살리기 사업 구간의 폐기물은 2백20만 톤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약 6백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폐기물은 오래전부터 하천변에 쌓여 있던 쓰레기와 장마 때 떠내려온 쓰레기, 하천변 농경지에서 쓰고 버린 비닐하우스 폐기물, 4대강살리기 공사를 위해 하천변에 있던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이다. 이 밖에 주민들이 몰래 갖다버린 생활 쓰레기도 있다.

4대강 쓰레기 대청소를 위해 현재 79개 공구에서 폐기물 처리용역이 발주됐으며, 나머지 공구에서도 순차적으로 발주가 이뤄지고 있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사업지원1팀 이창기 사무관은 "폭우로 각종 쓰레기가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해양환경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부유 가능성이 있는 각종 쓰레기, 방치 폐기물 등을 우선적으로 수거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대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하천 둔치의 경작지를 정리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제거함과 동시에 하천 내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모두 수거함으로써 4대강은 더욱 깨끗하고 건강한 강으로 바뀌게 된다.

동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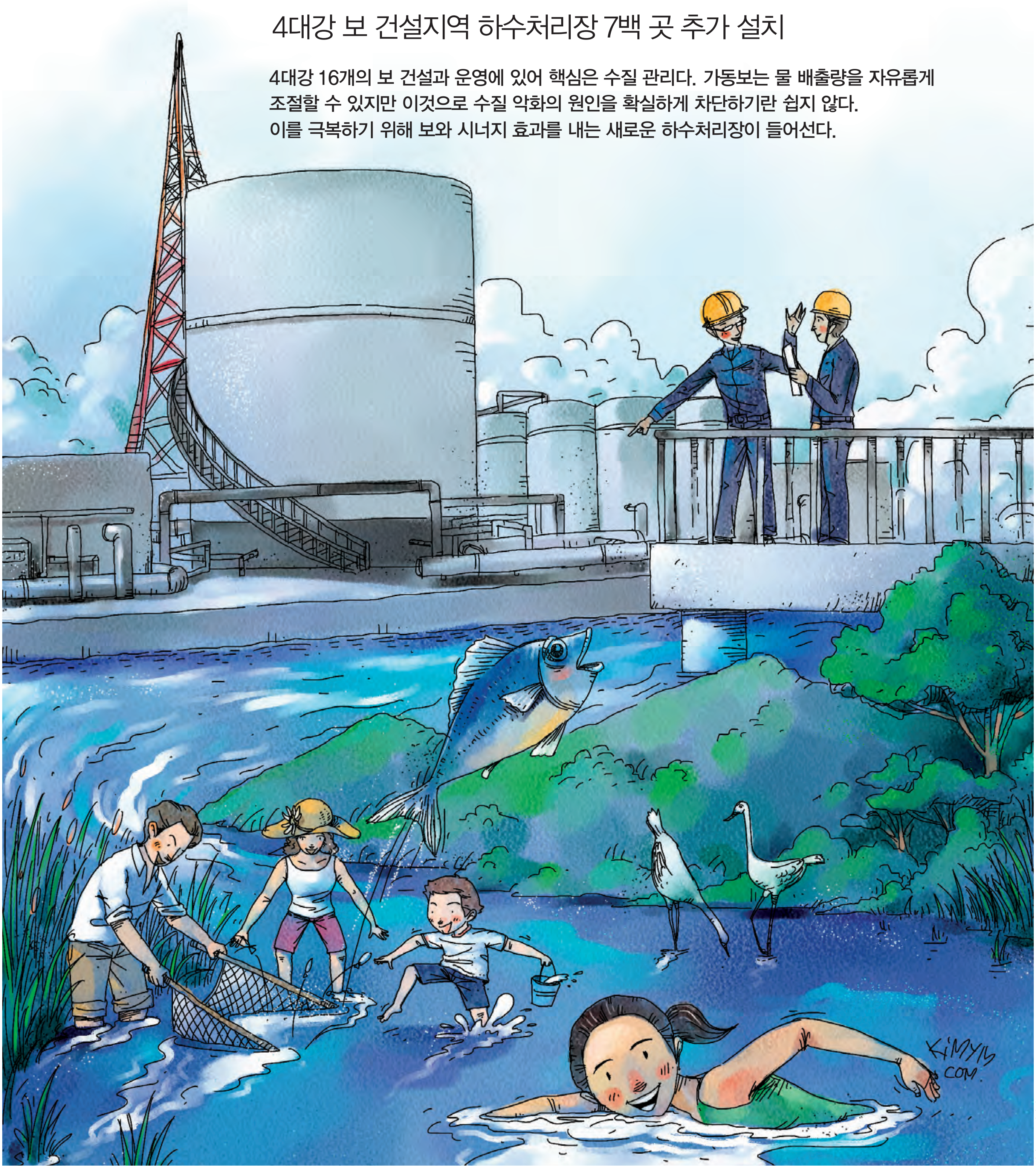


7월 14일 영산강 하류인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도에서 집중호우로 떠내려온 쓰레기를 주민과 공무원들이 치우고 있다.

4대강 전 구간 2급수 물 비율 86%로 올린다

4대강 보 건설지역 하수처리장 7백 곳 추가 설치

4대강 16개의 보 건설과 운영에 있어 핵심은 수질 관리다. 가동보는 물 배출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수질 악화의 원인을 확실하게 차단하기란 쉽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와 시너지 효과를 내는 새로운 하수처리장이 들어선다.



일러스트 · 김영민

"와! 98퍼센트요. 믿기지 않네."

지난 5월 팔당호 강하 하수처리장을 견학한 경기 양평군 양일고등학교 학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수처리장 관계자가 유입된 하수의 오염물질 98퍼센트 이상이 완벽하게 제거되고 있다고 하자 무척 놀란 것이다.

이처럼 보(洑)와는 무관하게 국내 하수처리장은 자체 기술만으로도 수질오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수질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현재의 오염도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4대강 보 건설 지역에 3조4천억원을 들여 7백 곳의 하수처리장 관련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 이를 통해 2012년까지 4대강 전 구간에서 '좋은 물' 달성 비율을 현재 70퍼센트대에서 86퍼센트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하수처리장에서의 오염물질 제거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그만큼 오염물질이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적다. 하수가 유입되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 및 고도화 처리 기술이 모두 동원된다. 1차적으로 하수 내 부유 물질이나 침강성 물질을 스크리닝과 침전 시설을 통해 물리적으로 제거한다.

이어 2차, 3차로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를 해서 부영양화 원인 물질을 없앤다. 때로는 2차 단계에서 협잡물을 걸러낸 하수에 모래 또는 무기물을 침전시켜 오염물질을 추가로 제거하는 기술도 활용한다. 다음으로 유출수를 미생물과 함께 포기(曝氣·공기와 접촉함)해 유기물까지 분해하는 과정이 이어진다. 미생물과 하수는 최종 침전지에서 고체와 액체로 분리돼 좋은 물은 방류되고, 침전된 슬러지(찌꺼기)는 일부 포기조로 반송되며, 나머지는 슬러지 처리시설을 거쳐 처리된다.

5천억원 투자, 하수처리장에 화학처리 시설

하수처리장은 4대강살리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총인으로 인한 피해를 억제하는 큰 역할을 맡는다. 총인은 하천 등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적조의 원인이기도 하다. 가정, 공장 등에서 쓰는 합성세제에 많이 함유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총인 농도는 리터당 0.16~0.2밀리그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과영양단계(리터당 0.1밀리그램) 기준을 넘어선 위험 수준에 와 있다. 환경부는 총인 처리를 위해 5천억원을 투자해 하수처리장에 추가 화학처리 시설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보 설치로 강물이 흐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총인 관리의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이미 2008년 8월부터 팔당댐과 대청댐 상류의 하수처리장 4곳에서 총인 관리를 시범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50퍼센트대에 머물던 총인 제거율이 지난 5월엔 96.5퍼센트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2012년까지 4대강 34개 수계에 자리한 하수처리장 가운데 2백40여 곳에 관련 처리시설을 설치한다. 이 시설이 추가되면 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 기준을 최대한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동아DB

친환경 하수처리장인 경기 '수지레스피아'에서 마이크로디스크 필터를 이용해 하수의 미세 오염물질을 걸러내고 있다.

환경부는 총인 처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부산녹산하수처리장과 인천가좌하수처리장에서 실시된 약품 투입 시기 등에 따른 총인 제거 효율 실험 결과도 발표됐다. 이렇듯 하수처리장은 4대강살리기 사업의 수질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구실을 하고 있다. G

글 · 유재영 기자

식수원 위협성분 처리법 특허 획득

"먹는 물 위협성분 원천적으로 막는다"

제련소에서 배출되는 무기성 폐수는 나트륨, 황산이온과 같은 독성이 높은 성분이 포함돼 있다. 이 성분은 생물학적 처리가 어렵다. 특히 황산이온을 포함한 퍼클로레이트의 처리는 난공불락이었다. 물에 대한 용해도도 높고 분자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어서 '해체'가 쉽지 않다.

국내에선 이온 교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퍼클로레이트는 2006년 낙동강 수계와 취수장에서 검출돼 먹는 물의 안전성 논란을 야기한 바 있는 물질. 2008년엔 수질오염 물질로, 올해는 먹는 물 감시항목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 위험 성분이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퍼클로레이트와 분해 과정이 유사한 질산이온을 첨가하는 고도 처리 기술을 개발했다. 실험 결과 질산이온을 첨가했을 때 퍼클로레이트 처리 효율이 기존 방법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정은 지난 6월 특허를 취득했다. 낙동강 수계에서의 예기치 못한 수질오염 변수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환경부 권오상 물환경제어연구과장은 "이 기술을 국내 무기성 폐수 배출 사업장에 적용하면 낙동강 수계에서 퍼클로레이트에 의한 수질오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4대강 치료는 첫째도 친환경, 둘째도 친환경"

자연 상태의 수생·일반 식물로 자연 복원하는 기술 이용

무조건 땅을 파내는 사업이 아니다. 공사라고 해서 전 구간에 콘크리트를 바르고 벽돌을 쌓는 게 아니다. 4대강살리기는 생명력을 잃은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사업이다. 건설이 아니라 치료행위다. 행위의 기준은 명확하다. 의사가 환자 개개인에 맞게 처방하듯, 4대강을 치료하는 데 동원되는 것은 친환경 기술이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 델타레스는 지난 4월 물 관리 기술에 대한 전략적 기술협약을 체결했다.

"과거 한강 재개발을 할 때는 하천 복원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양쪽 강가를 콘크리트로 다 덮어서 강둑이 쓸려나가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4대강살리기 사업은 자연 상태에서 수생식물이나 일반 식물을 이용해 그 강변이 유지가 되는 자연적인 복원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하천 복원 전문가인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건축환경공학과 교수의 말이다. 그는 지난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대강이 콘크리트 일색의 강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단호하게 반박했다. 오히려 4대강살리기 사업은 콘크리트 사용을 자제하면서 다양한 친환경 기술의 적용과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는 준설 등 보(洑) 기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오염 등을 줄이는 친환경적 공법의 활용과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무엇보다 준설구간 작업 단계에서는 강 상·하류로 흙탕물 유입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흙탕물 유입이 수생태계 오염, 인근 양식장 폐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준설공사 현장마다 침사지와 오탁방지막 등을 설치해 준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탁수의 농도를 낮추고 상·하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오탁방지막은 강폭 전체에 세워지는데, 아예 강 중앙부에 오탁방지막을 이중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4대강에 들어설 16개 보 중 가장 길이가 긴 강정보에서도 상류 쪽 4개의 취수장으로 탁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이중 삼중으로 오탁방지막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흙탕물을 유발하는 미립자 성분을 확실하게 제거하기는 어렵다. 또한 공사 현장에선 육상으로 이송된 준설토를 적재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흙탕물을 말끔하게 처리해야 하는 고민도 있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흙탕물을 고속으로 응집해 침전시키고, 여기서 1차 처리된 흙탕물을 차량에 탑재해 이동하면서 여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지난 6월 개발했다.

침사지 · 오탁방지막 등 설치로 흙탕물 막아

응집, 침전 시엔 친환경 응집제를 사용해 잔류 독성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 돼 흙탕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슬러지(찌꺼기)도 별도 처리할 필요가 없어졌다. 작업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 면에서도 큰 효과를 얻게 된 것이다.

또한 공사 현장에선 이미 흙탕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공법이 시도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준설공사가 시작된 낙동강 22공구(달성·고령지구). 준설 물량만 해도 2천2백70만 세제곱미터

에 이르는 이곳에서는 애지테이터(Agitator)식의 친환경 준설 공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애지테이터식 장비는 오탁 및 오염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흙탕물과 토사를 바로 흡입하는 장치와 모니터링 장치(수중카메라, 탁도계, 음향측심기 등)가 장착된 전용 준설기를 말한다. 토사를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흙탕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동시에 준설 방향과 굴삭 깊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준설 이외의 공정에서도 다각적인 기술이 접목되고 있다. 보가 완성되면 철저한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보와 인근 댐의 연계 운영 및 하천 통합운영 시스템 개발이 필수적이다. 보가 들어선 이후 하천의 모양과 형상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다시 인근 자연과 친환경적으로 매치시키는 기술도 마련해야 한다.

세계적 수자원 전문기관의 물 관리 기술 전수

이에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지난 4월 네덜란드 델타레스(Deltares)사와 물 관리 기술에 대한 전략적 기술협약을 체결했다. 델타레스사는 네덜란드 정부가 지원하는 독립연구소로 2005년 미국 뉴올리언스를 강타했던 카트리나 홍수 범람 등을 분석한 세계적인 수자원 전문기관이다.

한국수자원공사 기술지원센터 박재영 센터장은 "4대강살리기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보 운영, 유역 관리 등에 관한 세계적인 전문기관의 친환경 핵심 기술을 배우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의 전반적인 물 관련 기술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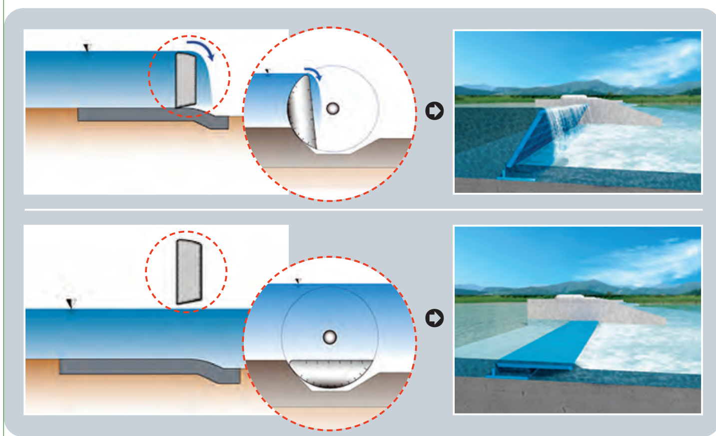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엔 미 육군 공병단(OSACE)과도 친환경 하도 복원 및 관리기술에 대한 기술협약을 체결했으며, 물 관련 엔지니어링 세계 1위 기업인 '테트라텍(Tetra Tech)'과도 올해 하반기 기술협약을 모색하고 있다.

멸종 가능성이 있는 동식물에 대해서도 친환경적인 복원·증식이 시행된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이미 지난 3월 예산 19억원을 확보해 흰수마자와 꾸구리에 대한 복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얼룩새코미꾸리와 묵납자루도 4월 국립생물자원관에 위탁해 복원 중이다.

동아DB



멸종 가능성이 있는 식물에 대해서도 친환경적 복원이 이뤄진다.
한강 6공구에서 대체 서식지로 옮겨진 단양쑥부쟁이.



4대강 친환경 기술의 대표적 결정체인 가동보의 평상시(위)와
홍수 때 수문 개폐 형태.

이뿐만 아니라 어미 물고기와 치어(알에서 깬 지 얼마 안 되는 물고기) 간의 유전자원을 분석해 기존 서식 어류와 복원 어류의 추적 자료로 활용한다. 점차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생물서식처 복원기술 개발사업과도 연계해 어류 증식·복원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ECO-STAR' 프로젝트를 통해 4대강 수생태복원 친환경 신기술을 연구 중이다. 이 프로젝트의 총괄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하천을 거슬러 올라오는 물고기들을 방해하지 않는 생태복원용 어도(魚道)를 개발했다. 한국환경공단 생태하천복원기술 지원센터 역시 4대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기술 지원에 나서고 있다. G

글 · 유재영 기자

젊음과 열정 '4대강 알리기'에 쏟는다

대학생 1백99명 4대강살리기 서포터스 출범

'젊음의 열기'로 4대강살리기를 알린다. 지난 7월 5일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주변 대학생 1백99명을 4대강살리기 서포터스로 출범시켰다. 온·오프라인 현장에서 4대강살리기를 위해 열정을 쏟는 이들을 만났다.

"당신이 아는 4대강살리기, 진정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관심입니다."

뜨거운 열기로 푹푹 찌는 7월 말의 한낮, 한 20대 청년이 피켓을 들고 서 있다. 또 다른 청년들은 길을 걷다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손수 만든 한 장의 종이를 내민다. 4대강살리기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지다. 1박2일 동안 대구와 구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1백여 명의 사람들에게 4대강살리기로 소통하고자 노력한 이들은 겉보기엔 평범한 4명의 대학생. 그러나 이들의 생각과 행동은 범상치 않다. 가람장이, '강을 만드는 사람'이란 뜻의 팀명으로 활동하는 4대강살리기 대학생 서포터스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블로그(blog.naver.com/kitf4)에는 4대강살리기를 알리기 위한 발자국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정치적 이슈나 정책처럼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4대강살리기를 기발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재탄생시켜 더 눈에 띈다.

4대강살리기의 본질을 알리기 위해 3D영화 <아바타>를 패러디한 '강바따', 2050년에 살고 있는 미래인이 찾아와 4대강살리기의 긍정적 측면을 전해주는 웹툰까지, 4대강살리기를 알리는 사용자 손수제작물(UCC)이 10개를 넘는다. 비용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낙동강 7백리를 열흘간 걸으며 4대강살리기의 중요성을 깨달아가는 '낙동강 원정대' 추진 계획서도 읽다 보면 가람장이 팀원들의 무한 열정이 느껴진다.

4인4색4강팀 한강살리기 알림이 활동

가람장이 팀원들은 금오공대에 재학 중인 절친한 선후배 사이이다. 기숙사 생활도 함께하다 보니 눈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4대강살리기를 알리기 위한 아이디어 회의의 연속이다. 가람장이 팀장인 원주연(28) 씨는 "학교 주변에 있는 낙동강을 보면서 지낸 터라 평소 강의 자연생태와 환경 등에 관심이 많



7월 21일 4대강살리기 대학생 서포터스는 울산 태화강을 찾아 '죽음의 강'이 '생명의 강'으로 거듭난 현장을 둘러봤다.

가람장이



4인4색4강



◀가람장이팀(낙동강)은 설문조사 등 4대강살리기 거리 홍보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인4색4강팀(한강)은 경기 여주군 강촌보 건설 현장을 방문해 논란이 된 단양쑥부쟁이 대체 서식지를 직접 살펴봤다.

았다"며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4대강살리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본질을 제대로 알고 싶었고, 알리고 싶었다"며 참여 동기를 밝혔다.

'들려주다' '보여주다' '외치다' '느끼다'란 4가지 소통방식으로 한강살리기 알림이로 활동하는 4명의 여대생도 있다. 건국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도들로 이뤄진 4인4색4강팀이다. 이들은 벌써 블로그(blog.naver.com/4p4c4r) 방문자가 8천7백명을 넘었다. 4대강살리기 정보나 현황 등 4대강살리기 관련 소식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업데이트된다. 여기에 최근 현장을 다녀온 상세한 소감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7월 27일 4인4색4강팀은 경기 여주군의 여주보 건설 현장을 다녀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멸종위기종 2급 단양쑥부쟁이 생태 현장을 살펴보고 4대강살리기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4대강살리기 올바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소통해야"

강세라(22) 팀원은 "단양쑥부쟁이 3만8천 포기가 대체 서식지에서 건강히 자라고 있었다"며 "8, 9월쯤 꽃을 활짝 피운다고 하는데 그 예쁜 모습을 보러 다시 한 번 여주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4인4색4강팀은 이포보 반대농성 상황실도 방문했다. 4대강살리기가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선 상대편 의견도 들어봐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날 여주환경운동연합의 이항진 진행위원과 짧은 대화를 나눈 이들은 4대강살리기를 알리기 위해 더 많은 공부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4대강살리기에 대해 올바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얕은 지식이 아닌 깊은 지식으로 다시 소통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4대강살리기를 알리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7월 5일 4대강살리기 대학생 서포터스를 출범시켰다. 전국 4대강 주변에 거주하는 대학생 총 1백99명 55개팀으로 이뤄진 이들은 4대강살리기 사업 지역 체험 및 탐방 홍보, 대도시 홍보, 팀별 블로그 활동을 통해 4대강살리기 전방위 홍보대사로 약 5개월간 활동한다.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로 구성된 22명의 멘터들은 이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조언을 해준다. 4대강 서포터스 한강지역 멘터인 한국수자원공사 강천보건설단 윤석영(53) 차장은 "젊은 대학생들이 4대강살리기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배워가면서 그 필요성을 절감하는 모습에서 4대강살리기의 긍정적인 미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4대강살리기 대학생 서포터스 활동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정해지는 미션으로 진행된다. 이미 지난 7월 21일 울산 태화강을 주제로 '4대강살리기를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라'는 1차 미션이 주어졌다. 이날 4대강살리기 대학생 서포터스는 태화강의 맑고 풍부한 물길을 따라 십리대밭교, 태화강 전망대 등을 둘러보며 4대강의 미래를 품었다.

"자연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인간이 자연을 도울 수 있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4대강도 지금은 메마르고 썩어가고 있지만 태화강처럼 건강한 모습을 되찾지 않을까요."(안현진 한강 포에버포리버팀)

"한여름에 강가에서 물장구치며 물놀이하는 게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다시 태어난 태화강이 있잖아요. 4대강살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박주현 금강 수호인팀)

지금은 '미운 오리새끼'일지 몰라도 조만간 '백조'의 날개를 펼 4대강살리기를 끝까지 응원하겠다는 4대강살리기 대학생 서포터스. 이들이 4대강살리기의 미래를 믿고 함께해주고 있어 든든하다. G

글 · 김민지 기자

4대강살리기 대학생 서포터스 카페 cafe.naver.com/tbwp

Q&A 4대강 사업, 맑고 투명하게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해 물 부족 국가에서 벗어나고 깨끗한 물 관리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다지기 위한 4대강살리기 사업. 그러나 아직도 의구심을 버리지 않은 시선들이 존재한다. 심한 반대에 부딪혔던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청계천 복원도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시민의 쉼터로 거듭났다. 왜 우리가 4대강살리기를 해야 하는지, 문제는 없는지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문점을 풀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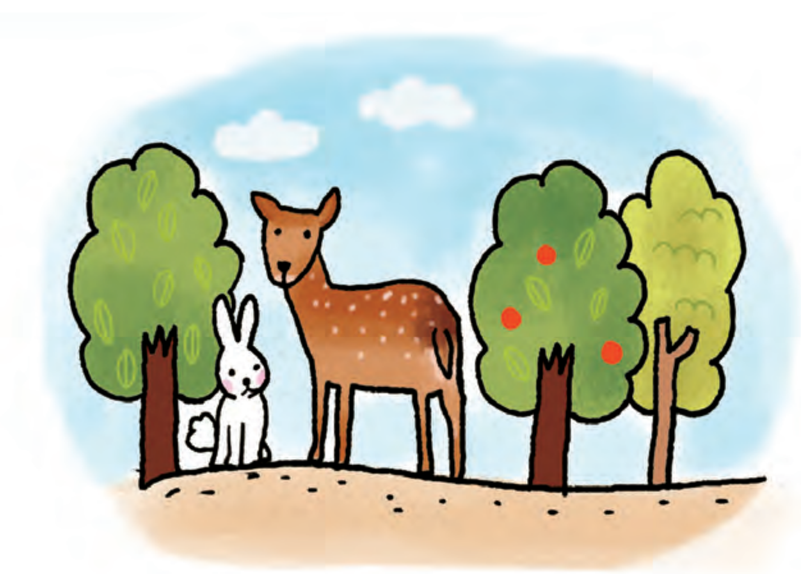
Q 4대강살리기 사업은 왜 하나.

A 우리나라는 이미 물 부족 국가다. 오염된 물을 맑은 물로 복원하고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는 것은 시급한 국가 과제다. 생명을 살리고 생태계를 복원해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 4대강살리기 사업의 목표다.

Q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을까.

A 보호종에 대해 충분한 사전 보호조치를 시행해가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례로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도 대체 서식지로 옮겨 심어 키우고 있다. 단양쑥부쟁이는 2008년 인공증식에도 성공해 사실상 멸종위기에서 벗어난 상태다.

또 4대강살리기 사업 후에는 하천 오염원을 관리하고 하천의 보(洑)를 주기적으로 가동해 하천 바닥의 침전물을 방류해 종합적으로 수질관리를 함으로써 깨끗한 생태환경을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습지공원, 생태공원, 하천 저류지 같은 생태하천구역을 조성해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된다.



Q 보가 생기면 저지대가 물에 잠길 우려는 없나.

A 사업 시행 전 보 건설 지역의 피해 범위와 정도에 따라 저지대에 흙을 쌓아 높이고 배수시설을 늘리는 등 구체적인 침수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저지대 피해가 우려되는 낙동강 함안보의 경우도 수위를 당초 7.5미터에서 5미터로 낮추고 준설로 하도경사(아래로 흐르는 강의 경사)를 조정해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상황에 맞춰 공사를 하고 있다.

Q 준설 때 생기는 흙탕물로 강물 오염이 심해지지 않나.

A 수중 준설 시 발생하는 흙탕물은 바로 하천으로 방류하지 않고 인근 침사지(수질을 정화하기 위한 시설)로 보내 부유물질을 충분히 침전시킨 다음 방류하고 있다. 일례로 낙동강 1공구의 경우 흙탕물이 16시간 체류할 수 있는 규모(8만3천 세제곱미터)의 침사지를 설치했다.

Q 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한 사례가 있는가.

A 울산 태화강, 성남 탄천, 서울 성내천, 용인 경안천이 좋은 예다. 특히 태화강은 공장폐수와 생활폐수로 한때 '죽음의 강'으로 불릴 정도였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힘을 모아 지금은 시민 휴식처로, 사랑받는 친수공간으로 되살아났다. 외국 사례로 미국의 테네시강과 일본의 아리강, 독일의 이자르강도 하천복원사업을 통해 건강하게 되살아난 강으로 꼽을 수 있다.



Q 준설토가 검은색을 띠는 이유는.

A 준설토가 검은색을 띠는 것은 미세 점토질이 함유된 때문이다. 오염물질이 함유된 오탁수가 방류돼 수질이 오염되고 동식물 서식환경이 훼손된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Q 준설토 적치장에 설치된 임시 배수로에서 부유물 덩어리가 강으로 흘러든다는데.

A 임시 배수로는 집중호우 시 준설토 적치장에서 빗물이 빠져나가도록 임시로 설치한 수로다. 최근 낙동강에서 발생한 부유물(거품)은 집중호우 시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수준으로, 준설토 공사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

Q 7월 초 집중호우 때 낙동강 일부 보가 침수된 것은 아닌가.

A 당시 낙동강 수위 상승에 대비하고, 보 가물막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낙동강 하류의 강정보, 합천보, 함안보의 경우 강 수위가 가물막이를 넘기 전에 계획대로 가물막이에 물을 채운 것이다.

이들 3개 보는 가물막이 높이를 홍수 때 강 수위보다는 낮게 설계해 홍수기에는 가물막이 안에 하천수를 미리 채워 가물막이 안팎의 수압을 동일하게 유지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따라서 가물막이 물 채움은 침수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보 역시 침수한 것이 아니라 잠수한 것이다.

Q 일부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석면 석재를 썼다는데.

A 4대강살리기 사업에서 환경에 유해한 석재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충북도에 위탁해 시행 중인 사업 구간인 한강 15공구에 친환경 하천 조성(저수호안 기초, 여울 조성, 징검다리, 돌계단, 수로) 등에 사용할 계획인 일부 석재에 석면이 함유됐다는 제보가 있어 즉시 반입과 시공을 중지했다.

시공된 석재는 18톤 규모로, 환경단체 등과 함께 시료를 채취해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석면 검출 여부 등을 정밀 조사해 만약 석면 성분이 검출되면 시공된 석재는 모두 폐기처분하고 재시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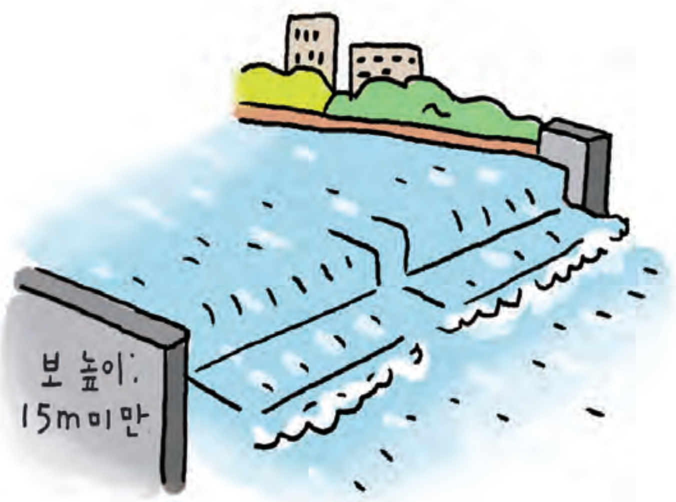
Q 보는 댐과 뭐가 다른가.

A 댐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등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의미한다.

보는 각종 용수의 취수, 수면 활용 등을 위해 수위를 높이고, 조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의 횡단 방향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일반적으로 ▲기초 지반에서 고정보 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미만인 경우 ▲유수 저류에 의한 유량 조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양 끝부분을 제방이나 하안에 고정하는 경우를 보라고 본다.

따라서 4대강살리기 사업에서 설치하는 횡단 구조물은 첫째 15미터 이하이고, 둘째 양 끝부분을 제방이나 하안에 고정하는 구조이므로 '보'로 분류하는 게 맞다. 이 밖에 보는 수몰 영향력이 적은 반면, 댐은 수몰 영향력이 크다는 차이점도 있다. G

글 · 박경아 기자 / 일러스트 · 박지혜



강 따라 떠나는 1박2일
스마트폰 속에 다 있다



스마트폰에서도 4대강살리기 애플리케이션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행복4강'(한글판)과 '4Rivers'(영문판)는 4대강살리기 사업 바로 알기와 주변 여행코스 정보는 물론 동영상, 사진, 게임, 만화를 재미있게 즐기며 트위터나 블로그로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최신 애플리케이션이다.

8월 초 신혼부부 남정형(28), 박지영(29) 씨는 경기 남양주시와 양평군으로 1박2일간 짧은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에서 느티나무 숲길을 산책하고, 인근 생태공원인 새미원에서는 한여름 연꽃축제를 즐겼다.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다산 정약용의 생가 여유당(與猶堂)에도 들렀다가 근처의 호젓한 강가도 함께 거닐었다. 땡볕이 내리쬐는 한낮에는 양평의 한 식당을 찾아 살얼음이 동동 떠 있는 동치미 소면으로 더위를 식히기도 했다.

이들 부부가 한강을 따라 돌아다닌 여행 코스는 거의 모두 스마트폰에서 내려받은 애플리케이션(응용소프트웨어 · 이하 앱) '행복4강'의 메뉴 중 '추천 1박2일'에 소개된 곳들이다. 이 메뉴에는 1박2일간 시간대별로 강을 따라다닐 수 있도록 여행정보뿐 아니라 맛집, 숙박시설 등이 상세하게 소개돼 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가고 싶은 장소를 터치하면 실시간으로 구글 맵이 연동돼 가는 길 안내까지 해준다.

4대강살리기 바로 알기 · 여행정보 등 콘텐츠 제공

이처럼 추천 1박2일 메뉴에는 한강 외에도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주변의 여행정보가 알차게 담겨 있다. 남 씨는 "스마트폰의 똑똑한 앱 덕분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스마트한 여름휴가를 즐겼다"고 만족스러워했다. 부인 박 씨도 "'행복4강' 앱에서 강을 따라가는 추천 1박2일 코스를 '즐겨찾기'해야겠다"고 말했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 속도는 그야말로 폭발적이다. 8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3백만명을 넘어섰다. 관련 업계는 올해 말까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6백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는 2천만명 가까이, 2012년엔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닐 것으로 전망된다.

남 씨 부부의 예처럼 사람들이 '손 안의 PC'인 스마트폰에 열광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한 앱 때문이다. 앱 시장의 선두주자인 애플의 아이폰 앱스토어의 경우 지도, 교통정보, 음악, 게임, 만화 등 현재 20만 개가 넘는 앱이 등록돼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지난 7월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선보인 '행복4강'은 4대강살리기 사업을 홍보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아이폰용 앱이다. 국민에게 4대강살리기 사업을 알리면서도 블로그, 트위터 등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와 연계해 소통할 수 있는 앱을 선보인 것이다.

행복4강 앱의 메뉴는 크게 6가지다. 4대강살리기 사업을 알리는 콘텐츠로는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사업 취지 및 개요) ▲바로 알기(4대강살리기 오해와 진실) ▲동영상&포토(4대강살리기 사진 및 동영상 서비스)가 있다.

이들 콘텐츠를 지인들과 공유하는 창구로는 ▲커뮤니케이션(블로그, 트위터, 미투데이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메뉴가 있다. 여가에 즐길 수 있는 메뉴로는 ▲추천 1박2일(4대강 주변의 여행코스 안내 및 지도 서비스) ▲게임&만화(퍼즐게임 및 만화 콘텐츠)가 있다.



'행복4강' 애플리케이션 내려받기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행복4강'(한글판) 또는 '4Rivers'(영문판) 키워드를 입력해 애플리케이션을 찾은 후 내려받는다.

각 메뉴를 살펴보면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는 4대강살리기 사업의 비전, 추진 배경, 정책 방향, 핵심 과제, 기대효과 등을 담고 있다. 화면이 작은 스마트폰의 특성을 살려 텍스트보다는 사진과 만화로 구성한 게 특징이다.

'추천 1박2일'은 4대강 주변의 여행정보를 담고 있는 인기 메뉴다. 4대강에서 1박2일간 시간대별로 따라가는 낭만 데이트 코스, 역사기행, 축제정보 등을 담았다.

'추천 1박2일' 4대강 주변 여행정보 인기몰이

'바로 알기'는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그림과 짤막한 설명으로 보여준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의 공식 온라인 소통도구인 네이버 블로그(1000일의 약속), 트위터(save4rivers), 미투데이(save4river)로 연결되는 원클릭 버튼이다.

예를 들어 트위터의 경우 8월 4일 현재 3천4백10명의 팔로어(트위터 소식을 듣는 친구)가 있어서 스마트폰에서 곧바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와 소통할 수 있다.

행복4강 앱을 내려받은 사람은 8월 2일 현재 국내에서 1천3백90명. 같은 날까지 영문판 행복4강 앱(4Rivers)은 4백10명이 내려받았으며, 영문판 이용자는 외국인이 대부분이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김승겸 해외홍보전문관은 "행복4강은 국내외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4대강살리기 사업을 실시간으로 보며 소통할 수 있는 최신 플랫폼"이라면서 "앞으로 아이폰 외에 국내외 다른 스마트폰 기종에도 행복4강 앱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G

글 · 최은숙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행복4강' 애플리케이션은 한글판과 영문판이 있으며, 4대강살리기 사업 홍보 콘텐츠, 여행정보, 게임과 만화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주민과 합심해 30년간 방치된 죽은 강 살리겠다"

박준영 전남지사 "영산강살리기는 미래 위해 꼭 필요한 사업"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처음 도지사로 출마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영산강살리기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후손과 역사에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영산강살리기는 미래를 생각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전라남도

박준영 지사는 영산강살리기가 용수부족을 해결하고 홍수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수준 높은 문화가 어우러진 녹색의 땅 전라남도'.

최근 도민의 지지 속에 3선에 성공한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내세운 모토다. 2004년 영산강살리기 사업을 공약한 박 지사는 "영산강살리기는 이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며 "주민과 합심해 30년간 방치됐던 죽은 강을 살리겠다"고 시종일관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지사를 만나 영산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 도지사로 출마할 때부터 영산강살리기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2004년 갑자기 출마하게 돼(당시 박태영 전 지사의 사망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박준영 지사는 야당이던 민주당의 요청으로 출마했다) 공약의 대부분을 민주당에서 만들어줬습니다. 그중 영산강살리기도 있었지요.

공교롭게도 그해 8월 취임 두 달 만에 나주와 화순이 물바다가 돼 농경지가 침수되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니 샛강에 토사가 쌓여 물이 흐르지 못했던 겁니다. 정부 지원이 안 돼 2006년 자체 예산으로 전문건설협회와 군부대에 지원을 요청해 샛강을 60퍼센트가량 정비했습니다.

저는 도지사로서 현안을 우선하고 후손과 역사에 책임져야 합니다. 영산강살리기는 급조된 공약이 아니고 많은 연구와 분석을 거쳐 미래를 생각해 추진해온 공약사업입니다. 당에서도 영산강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4대강살리기 사업과 별도로 영산강을 살려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영산강을 제외한 다른 강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강의 상황은 잘 모르며 얘기할 처지도 아닙니다. 다만 대운하를 포기하고 강을 살리자고 하는 것에 일부에서 의구심을 갖는 것 같으니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

고 봅니다. 또 영산강처럼 꾸준히 사업을 요구해온 지역부터 차례로 했다면 논란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환경평가 등을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정운찬 총리와 박준영 지사가 죽산보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영산강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광주광역시와의 갈등은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지요.

전남도와 광주광역시 모두 영산강을 깨끗이 만들자는 것에는 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2006년 광주광역시와 '광주, 전남 영산강 수질개선 노력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의 시급한 오·폐수 처리 문제도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고요.

광주시는 보(洑) 설치나 하도 준설보다는 수질개선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보 설치와 하도 준설은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홍수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광주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영산강살리기와 광주의 오·폐수 처리 문제는 병행 추진이 필요합니다.

영산강은 4대강 중 수질오염이 가장 심각하지만 낙동강에 비해 예산이 적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영산강에 투입되는 수질개선 사업비는 3천4백75억원(전체 사업비 3조3천6백34억원의 10.3퍼센트)입니다. 2006년까지 한강에 1백20퍼센트, 낙동강에 80퍼센트, 금강에 62퍼센트의 수질개선 사업비가 투자됐으나, 영산강은 49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다른 강은 식수원으로 관리됐지만 영산강은 농업용수로 관리됐기 때문입니다.

영산강의 수질이 가장 나쁜 점을 감안해 수질개선 사업비 확대와 국고부담 비율의 상향조정이 필요합니다. 전남도는 영산호 퇴적오니 준설, 환경기초시설 확충, 생태하천 복원 등의 수질개선 사업비를 1조4천9백75억원 늘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3선 연임에 성공했는데, 내세울 만한 업적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010 국제자동차경주대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국제농업박람회 등 전남이 꿈꾸지 못했던 국제행사를 유치한 것입니다.

또 모두 어렵다고 했던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전국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의 52퍼센트를 달성한 것도 성과입니다. 친환경 농수축산업, 천일염 상품화, 섬 개발, 해양생물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등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을 산업화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화순에는 백신산업을 어렵게 유치했는데 지난해 신종플루 발생으로 국내 최초의 백신 생산과 함께 세계 12번째 백신 생산 국가가 됐습니다. 화순에는 이를 기반으로 BCG 백신공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의 마그네슘, 목포의 구조세라믹도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해 2천 개 기업을 유치하고,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인구 2백만명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절실합니다.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면 국가경제가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선진국도 낙후지역에 신산업을 배치해 균형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낙후지역은 복지예산을 부담하느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요즘은 교육 때문에 농촌을 떠나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지역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이를 뒷받침해준다면 전남은 미래 한국 발전에 기여할 자산이 많습니다.

도민들께는 전남을 바꿀 소명을 다시 맡겨주신 데 감사드리고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해 전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전남은 대대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에너지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데 협심하기를 기대합니다. G

글·공감코리아(korea.kr) 제공

'세 살 경제교육 여든까지 간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체계 마련

인간의 삶은 경제행위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도 눈에 띄는 경제발전 덕분이다. 경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아는 것은 내일을 살아가는 지혜다. 정부는 미래의 주인공인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에 나섰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세계 곳곳을 강타했다. 정부, 기업을 쓰러뜨리고 가계 살림을 어지럽혔다. 우리나라 역시 쉽지 않은 시기였다. 그러나 1년 뒤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프랑스 〈르피가로〉 등 해외 유수 언론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대한민국이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를 탄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우리나라는 건국 60여 년 만에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뤄내고 최근 경제위기까지 극복해 현재 세계 10위권의 중견국가로 도약해 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탄탄한 경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선 국민들이 경제현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판단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OECD는 한 보고서에서 "가계 등 개별 경제주체의 금융 이해력 부족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심화시킨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2005년 금융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저축, 신용관리 등 개인의 금융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계속돼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 고지해왔던 OECD로선 경제발전의 구심점과 경제위기 대응에 있어 '경제교육'이 핵심이 된다는 것을 꿰뚫어본 셈이다.

경제교육, '합리적 경제활동' 지원하는 국가경쟁력의 기반

세계경제의 중심축을 맡아온 미국이나 영국도 국가 차원의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기민하게 변하는 경제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구실을 한다. 따라서 경제교육은 전 국



민이 경제적 편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국가경쟁력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난해 5월 경제교육지원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올해 7월 7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후속조치로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초중고등학생에서부터 일반 국민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 경제교육 체계를 마련키로 한 것이다. 특히 초등학생 등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은 미진한 구석이 많았다. 경제교과서가 경제교육보다는 경제학 이론에 쏠려 있거나 시장경제에 대한 잘못된 해석도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말 저작자와의 협의 등을 거쳐 경제교과서 수정을 마쳤다. 이론교육에 비해 교육 관련 기관, 경제단체, 기업 등 체험교육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2007년 경제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경제교육 참여율은 고등학생은 4.4퍼센트, 중학생은 2퍼센트에 그쳤다. 이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교양 경제강좌도 수요에 비해 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4대 핵심과제가 마련됐다. ▲초중고등학교 시장경제 교육 강화 ▲맞춤형 평생 경제교육 추진 ▲경제교육 인프라 구축 ▲경제교육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이 중 학생들의 시장경제 교육 강화는 이번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개정된 교과서를 기본으로, 경제신문과 경제교육 종합포털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교재를 참고해 내실 있는 경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경제 60년사〉 같은 중고교 학습자료를 활용하고, 경제지식 전달에 치중하기보다는 현실 경제문제에 대한 토론 및 실습에 중점을 두는 수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경제연구학교를 지정해 체험형 경제교육을 잘 이끄는 학교에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운영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경제연구학교 지정 연간 1천만원 이상 운영비 지급

경제교육과 관련한 학교 밖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그간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민간단체나 기업에서 여러 경제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해온 것을 검토해 가장 적합한 예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교육, 기업가 정신 고양 및 산업현장 체험, 창업교육 등 카테고리를 세분화해 학생들 스스로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울 생각이다.

경제교육은 학교에서만 배우고 만다는 의식도 점차 바뀐다. 정부는 학교 경제교육에 이어 전 생애주기를 포함하는 평생 경제교육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G20 정상회의, 국격제고, 녹색성장 등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경제교육을 통해 일반적인 경제소양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금융채무 불이행자, 노년층, 탈북주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각기 상황에 맞는 경제교육을 꾸준히 제공할 방침이다.

경제교육이 실생활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경제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인프라도 재정비한다. 기존 경제교육 종합정보 시스템을 경제교육 종합 포털사이트로 확대 개편하고 각 학교 홈페이지와 연계하며, 인터넷 TV나 케이블 TV 등을 활용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이에서 어른까지 경제교육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앙, 민간, 지방의 협력체계도 중요해졌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앙부처와 경제교육협회, 11개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 세부 계획들을 이끌어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신상훈 과장은 "경제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밑그림이 완성됐다"며 "앞으로 경제교육이 활성화되면 아이들에게 올바른 경제관과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G

글 · 김민지 기자



일러스트 · 남동윤



8월 1일 U-20 여자월드컵 3, 4위전에서 콜롬비아를 1-0으로 꺾은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응원 나온 교민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한국 축구 '女름 단비' 내리다

여자축구 U-20 월드컵 3위 '쾌거'

한국 여자축구가 세계 3위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남자축구가 1954년 스위스월드컵에 출전한 이후 56년간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성과다. 비록 성인 대표팀은 아니지만 20세 이하의 어린 태극낭자들은 국제축구연맹(FIFA) U-20 여자월드컵에서 세계의 강호들을 연파하며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였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노력해 월드컵 무대에서 한국이 우승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U-20 여자월드컵에서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거듭난 지소연(한양여대)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괜한 자만심은 아니었다. 한국 여자축구의 미래를 벌써 감지하고 있는 듯했다.

한국 여자축구의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21위. 하지만 U-20 대표팀은 한국 여자축구를 세계 3위에 올려놓았다. 태극낭자들은 대회 조별리그부터 상대들을 큰 점수차로 대파하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스위스를 4-0으로 완파했다. 이 경기에서 지소연은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일찌감치 득점왕 후보로 떠올랐다. 이어 가나를 4-2로 누르며 8강 진출을 결정지었다.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는 세계 랭킹 1위 미국. 최인철 감독은 8강전에 대비해 지소연, 김나래 등 주전 일부를 쉬게 했다. 아쉽게 0-1로 패했지만 득점 찬스를 미국보다 많이 잡았을 정도로 경기 내용이 좋았다.

여유 있게 8강전을 준비한 태극낭자들은 북중미의 강호 멕시코와 8강에서 맞붙었다. 개인기는 멕시코가 한 수 위였지만 U-20 대표팀은 끈끈한 조직력을 앞세워 3-1로 완승을 거두며 4강에 올랐다.

세계적 공격수 지소연, 득점 랭킹 2위 · 실버볼 수상

4강전에서 개최국 독일에 1-5로 크게 패한 태극낭자들. 예상치 못한 큰 점수차 패배로 팀 분위기가 급격히 가라앉았지만 선수들은 3, 4위전에서 콜롬비아를 1-0으로 누르고 3위로 대회를 마치는 투혼을 발휘했다.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어린 태극낭자들은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성숙함까지 드러내며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다. 비록 우승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그라운드에서 보여준 모습은 아름다웠다.

이번 대회에서 두드러진 스타는 단연 지소연이다. 3, 4위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것을 포함해 총 6경기에 출전해 8골을

뽑아내며 독일의 알렉산드리아 포프(10골)에 이어 득점 랭킹 2위를 차지했다. 대회 득점 2위에 주어지는 실버부츠, 대회에서 두 번째로 좋은 플레이를 펼친 선수에게 주어지는 실버볼을 동시에 수상했다. 대회 3위에게 주어지는 동메달까지 포함해 그는 3개의 상을 받은 셈이다. 남자 축구선수 어느 누구도 올라서지 못한 자리다.

지소연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 여자선수가 세계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한 독일과 벌인 경기 후반에 수비수 4명을 허수아비로 만들며 성공시킨 골 장면은 압권이었다. 지소연의 장점이 모두 담긴 골이었다.

지소연의 플레이에 많은 관계자들이 찬사를 보냈다. 특히 조제프 블라터 FIFA 회장은 "지소연의 플레이는 매우 환상적이다. 경기를 풀어가는 그가 있었기에 한국 여자축구가 U-20 여자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극찬했다. 한국과 경기를 가진 모든 팀의 감독들은 지소연의 활약에 모두 혀를 내둘렀다. 지소연은 이번 활약을 계기로 미국무대에 도전장을 흔쾌히 내밀 수 있었다.

"미국으로 진출해 성인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더 많이 배워서 한국 여자축구가 계속 세계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U-20 여자대표팀 짧은 패스 위주로 상대팀 공략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에서 주목받은 실리축구가 U-20 여자월드컵에서도 빛났다. 스페인과 네덜란드 등은 남아공월드컵에서 실리축구를 앞세워 각기 우승, 준우승의 성적을 거뒀다. 극단적인 공격 및 수비축구가 아니라 볼 점유율을 높이면서 상대를 서서히 공략하는 실리축구를 U-20 한국 여자대표팀이 그대로 재연했다.

이전까지 한국 축구는 남녀 구분 없이 롱패스 위주의 수비축구가 대세였다. 특히 강호들과 만났을 때 위축되며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U-20 여자대표팀은 달랐다. 수비에서부터 공격 작업을 펼칠 때 짧은 패스 위주로 상대를 서서히 공략했다. 공격이 쉽지 않을 경우 수비라인으로 볼을 패스해 다시 상대를 공격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볼 점유율을 높이면서 경기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 골을 만들어내며 상대를 무너뜨렸다.

아쉽게 세계 정상을 향한 도전은 3위로 막을 내렸지만 U-20 대표팀의 플레이는 전술적으로도 완성도가 매우 높았다. 1년 전까지 여자대표팀 감독을 지낸 안익수 FC서울 수석코치는 "U-20 대표팀이 보여준 축구 스타일은 한국 여자축구의 미래가 그만큼 밝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따라준다면 남자보다 더 빨리 세계 정상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비인기 종목이 국제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낼 때마다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바로 '관심'과 '투자'다.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와 수영선수 박태환의 성공 사례를 보면 관심과 투자가 밑바탕이 됐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여자축구 또한 무관심과 서러움 속에서 볼을 차고 있다. 실업팀들은 기업이 공익 차원에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현재 진행 중인 WK리그 현장을 가보면 관중석이 텅 비어 있기 일쑤다. 경기 도중에 선수들이 내는 소리가 경기장 내에서 쩌렁쩌렁 울릴 정도다. 간혹 부모들과 모기업에서 응원을 나올 뿐 일반 관중은 찾아볼 수가 없다.

관심과 투자로 한 단계 도약 가능

게다가 고등학교 팀이 16개인 데 반해 대학 팀은 6개에 불과하다. 실업 팀이 7개로 오히려 더 많은 기형적인 형태다. 대학 팀 수가 적다 보니 많은 선수들이 일찌감치 운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여자선수들의 특성상 대학에서 더 많이 발전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축구화를 벗는 이들이 다수라는 게 여자축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자축구가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02 한일월드컵 잉여금이 큰 몫을 했다. 당시 월드컵 잉여금을 지원받은 여자축구연맹은 초등학교 팀 창단에 많은 부분을 투자했다. 결국 이때부터 볼을 차기 시작한 어린 선수들이 성장해서 U-20 월드컵에서 세계무대를 호령했다. 팬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투자가 한국 여자축구의 세계 정상 등극을 앞당길 촉매제가 될 것이다. G

글 · 최용석(스포츠동아 기자)

파란을 예고한 U-20 여자월드컵 1차전 스위스전. '특급 골잡이' 지소연이 골을 성공시킨 뒤 기도 세리머니를 펼쳐 보이고 있다.


동아DB



등산객들이 쓰레기를 되가져오면 그 무게만큼 포인트를 적립해 국립공원 시설 이용료로 쓸 수 있는 '그린포인트'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쓰레기는 줄이고 포인트는 늘리고"

국립공원 탐방 후 쓰레기 되가져가면 무게 따라 포인트 적립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북한산을 즐겨 찾는 회사원 김성남(47) 씨. 등산객들이 자주 쉬었다 가는 길목마다 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걸 보면 절로 눈살이 찌푸려지곤 했다. 얼마 전부터는 자신이 먼저 앞장서자는 생각으로 자신의 쓰레기와 함께 산속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오곤 했다.

지난주 일요일에도 산에서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도중에 산 입구에서 '국립공원 그린포인트 제도'가 생겼다는 펼침막을 보았다. 그는 그린포인트 제도란 무엇인지 문득 궁금해졌다.

일반 쓰레기 4g·재활용품 10g당 1포인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탐방 후 쓰레기를 되가져가면 그 무게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국립공원 그린포인트 제도를 8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는 탐방객이 자기 쓰레기뿐 아니라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해서 공원 입구 탐방지원센터에 가져가면 저울로 무게를 재서 그 무게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제도다.

포인트 적립은 일반 쓰레기의 경우 4그램당 1포인트이며, 유리병과 같은 재활용품은 10그램당 1포인트다. 적립된 포인트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그린포인트 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최소 5백 포인트가 적립되면 5백, 7백 포인트 단위 쿠폰을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즉 일반 쓰레기 2킬로그램이나 재활용품 5킬로그램을 가져올 경우 5백 포인트가 적립되며, 1포인트당 10원꼴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쿠폰을 출력해 5천원 상당의 시설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다. 포인트는 대피소나 주차장, 야영장 등 국립공원 시설 이용료로 쓸 수 있으며, 공단이 마련한 소정의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다. 상품은 등산용 다용도 스카프(버프)나 모자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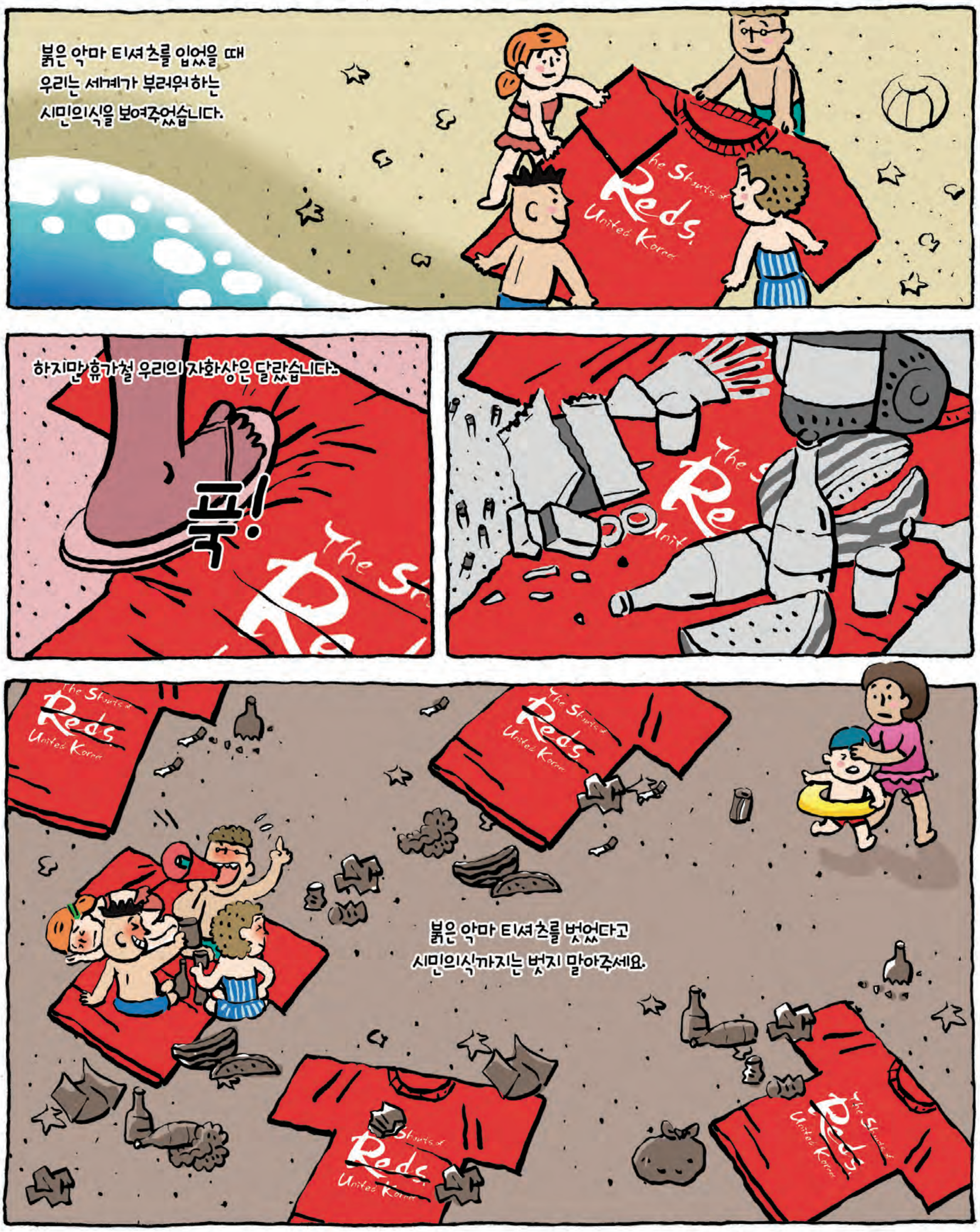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재양 주임은 "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저감을 위해 2007년 5월부터 공원 입구의 쓰레기통을 모두 없애 1천여 톤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다"며 "이번에 도입한 그린포인트 제도가 정착되면 공원 내 쓰레기 발생량이 연간 2천5백여 톤에서 1천여 톤으로 줄어 더욱 쾌적한 국립공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G

글 · 우매화 객원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 그린포인트 제도
ecotour.knps.or.kr/greenPoint/greenpoint_list.aspx

다 벗지는 마세요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버려진 쓰레기는 당신의 양심입니다.

기상캐스터 이익선이 추천하는 〈문학의 숲을 거닐다〉

“문학의 바다에 빠지면 마음 예보 가능해요”



요즘 날씨는 도통 예측하기 어렵다. 맑다가도 금세 소낙비가 내린다. 이럴 때 변화무쌍한 여름 날씨를 실시간으로 일러주는 기상예보만 체크해도 한시름 던다. 일이나 갑작스런 사정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변덕을 떠는 기분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20년차 기상캐스터 이익선(42) 씨는 “좋은 책을 읽다 보면 마음예보도 가능해진다”고 말한다. 1990년대 초 국내 최초의 여성 기상캐스터로 얼굴을 알렸고 지금은 민간 예보업체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는 그는 국회방송의 생방송 시사프로그램 진행 등을 맡으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엄마’로도 바쁘게 사는 그에게 책은 힘들고 정신없을 때마다 마음을 다잡아주는 좋은 친구다.

그중에서도 그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고, 언제 읽어도 희망을 품게 만드는 책이 있다. 고(故) 장영희 교수가 쓴 에세이집 〈문학의 숲을 거닐다〉.

한 일간지에 게재된 ‘문학의 숲, 고전의 바다’라는 제목의 칼럼들을 묶어 펴낸 이 책은 서양의 고전을 최대한 알기 쉽게 독자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

이 씨는 “〈어린 왕자〉 〈돈키호테〉 등 세계적인 문학작품과 펄 벅, 에밀리 디킨슨 등 영미문학 대가들을 소재로 장 교수의 경험과 생각을 담은 짤막한 글들을 마주하다 보면 사춘기 소녀마냥 문학적 감수성이 되살아난다”고 말한다.

“밑줄을 그어가며 이 책을 읽었어요. 솔직하고 순수한 장 교수의 에세이를 읽다 보니 여기 나오는 문학 책들을 다시 한 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리스트까지 작성했는데 결국 다 읽지는 못했어요. 대신 바쁜 삶 속에서 한 박자 쉬어가는 삶의 여유를 느끼고 싶을 때마다 이 책을 다시 들여다보게 돼요.”



〈문학의 숲을 거닐다〉 장영희 지음 · 샘터 펴냄 · 1만2천원

이 씨가 여러 번 이 책을 붙잡게 된 것은 장 교수의 매력적인 필력 때문이다. 누구나 한 번쯤 읽어봄직한 문학작품들을 장 교수는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준다.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에선 우리 시대 아버지의 슬픈 자화상을, 쿠리 료헤이의 〈우동 한 그릇〉에선 소외된 자들을 향한 따뜻한 배려의 시선을 얘기하면서 희망을 전한다.

“암 투병과 소아마비라는 장애 속에서 갇힌 세계를 살았을 텐데도 장 교수는 끊임없이 열린 마음으로 문학을 통해 삶의 희망을 전해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세상은 아직 살 만하다’고 일깨워주는 문학의 바다 속에 풍덩 빠지는 것 같아요.”

그는 앞으로도 계속 날씨와 책과 함께하는 삶을 살 거라고 말한다. 우리 주변에 늘 함께하는 날씨와 책처럼 소중한 것은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갑자기 내린 비가 그친 뒤 초록 잎들이 생기를 띠고, 싱그러운 흙냄새가 풍기면 잊고 살았던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먼저 다가서고 느끼려고 할 때 감동과 기쁨을 주는 날씨와 책을 인생의 동반자로 가까이한다면 더위로 지친 여름밤도 견디기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착각의 늪

글과 그림 · 최영순



최대의 범죄는 욕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배부름에 의해서 일어난다.
– 아리스토텔레스

Culture

mcst.go.kr KOR 문화체육관광부

4人4色 전통춤의 향연

국립무용단 기획공연 <바리바리 촘촘 디딤새>





보고만 있어도 콧노래가 나오고 어깨가 들썩이는 국립무용단의 인기 레퍼토리 <바리바리 촘촘 디딤새>가 어느덧 공연 10주년을 맞았다. '촘촘하게 내딛는 잦은 발동작'을 뜻하는 <바리바리 촘촘 디딤새>는 2001년 배정혜 현 국립무용단 예술감독이 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국 전통춤의 현대화를 향한 고민과 염원을 담아 기획한 공연이다.

올해는 10번째 무대를 기념해 '해설과 함께 되새기는 우리 전통춤 디딤새'라는 주제로 열린다.

8월 11, 12일에는 문창숙과 백형민이 무대에 선다. 처음에 선보일 작품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국수호류 사랑가'. 국립무용단 5대 단장을 역임한 국수호 안무의 '사랑가'는 춤을 추는 이들에 따라 다양한 변주가 가능한 작품이다. 이어서 무형문화재 제97호로 지정돼 있는 '이매방류 살풀이'(문창숙)와 양산지역 토속 춤인 '양산사찰학춤'(백형민)도 만날 수 있다.

역대 국립무용단 단장들의 춤을 재현하는 여미도와 윤성철의 공연(8월 14, 15일)도 기대할 만하다. 여미도는 국립무용단 4대 단장인 최현의 '비상'과 배정혜 예술감독의 '장고 춤'을, 윤성철은 국립무용단 3대 단장인 조흥동의 '중부살풀이'와 '한량무'를 색다른 감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일시 8월 11~15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목·토요일 오후 4시, 7시 30분, 일요일 오후 4시(금요일 공연 없음)
장소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관람료** 전석 2만원, 중고생 1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2280-4115~6 www.ntok.go.kr G

글 · 김지영 기자

● **조지 발란신의 <호두까기 인형>**

화려한 무대 세트와 함께 1백명의 무용수가 펼치는 조지 발란신 안무의 발레 공연.

일시 8월 15, 18, 21일 오후 2시, 7시 30분, 17일 오후 7시, 19, 20일 오후 7시 30분, 22일 오후 2시(16일 공연 없음)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관람료**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2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1544-1681 www.sac.or.kr

●● **광복 65주년 기념 특별공연 <역사의 빛을 향하여>**

일제강점기부터 오늘날까지 격동의 순간을 담은 영상과 역사어린이합창단이 전하는 희망의 목소리, 재즈와 국악의 만남 등을 즐길 수 있다.

일시 8월 14일 오후 8시 **장소**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무료 **문의** 02-580-3300 www.gugak.go.kr

●



●●



인터넷 검색창에 햇살론

햇살 참 좋~다!

대한민국을 밝게 비춰줄
따뜻한 금융, 햇살론이 시작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내일을
따뜻한 희망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햇살론

햇살론이 뭔가요?

대부업 등에서 30~40%대 고금리를 부담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해드리는 제도로 정부와 지자체, 6개 금융회사가 출연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서민대출 공동브랜드입니다

대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및 근로자입니다
(신용관리정보보유자 및 연체 중인 경우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검색창에 햇살론

*아래 금융기관으로 전화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NH 농협 1577-5522
새마을금고 1588-8801 / 1599-9000
신협 1566-6000 / 1644-6000
수협 1588-1515 / 1644-1515
산림조합 02) 3434-7222
저축은행 SB 02) 397-8600
신용보증 해드림 신용보증재단 1588-7365


4대강 살리기
그 어려운 시기를 넘어 경제를 살렸습니다.
지금 힘든 시기가 지나가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곧 되살아날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생명의 이름으로
우리 땅, 우리 강을 보살피겠습니다.